

# 고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2

2021 February  
Vol.537

사이를 넓히면  
가까워지는 우리 사이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 Contents

2021 February  
Vol.537

시선이  
닿다

일상을  
펼치다

세상을  
품다

소식이  
온다



## COVER STORY

수용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에 대한 기대가 교정시설에 가득합니다. 그 기대를 채우려 애쓰는 교정공무원들이 신축된 교정시설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근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취임사	04
제68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사	
교정 ZOOM IN	06
강원북부교도소	
생각의 방향	12
한 걸음 물러난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인연	
지금, 이 사람	14
좋은 건축은 삶을 나아가게 한다	
별별 알고리즘	18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더 끈끈하게 엮습니다	

부캐를 부탁해	20
바비큐장을 장악한 애정 담백 '굽기 기술'	
선배에게 듣다	24
본분을 다하고 화합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교정인 원픽	28
피로를 날리는 '잇템'의 힘찬 격려	
힐링 메신저	32
호수와 파도, 포구 사이를 서성이다. 속초	
지구 초대석	36
버릴 때도 관심이 필요한 올바른 '택배' 쓰레기 처리법	
물음의 소통	38
직장인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관계 반창고	40
냉정과 열정, 갈등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	
알쓸꿀잡	42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겨울철 동파 방지 편	
머니 레시피	44
공무원도 사적 연금이 필요하다	
인문학 살롱	46
LP판은 돌아온 것이 아니다	
오늘의 건강	48
편안한 호흡을 돋는 '코' 건강 지키기	



대나무숲 일기 1	50
꽃이 아름다운 이유	
대나무숲 일기 2	52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살며 꼭 빛을 갚겠습니다	
교정 리포트	54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 ②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2월호 Vol.537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을 통해 법무부를 이끌어 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 개혁 명령을 완수 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법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인권 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 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 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돼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역사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검찰 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합니다.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갑시다.

##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 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 합니다. 법무 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이 돼야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 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 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 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옥(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 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 조직 또한 재편해야 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 범죄 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합니다.

##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 합니다. 1인 가구, 한 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베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설렙니다. 앞으로 동고동락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 2. 1.

법무부 장관 박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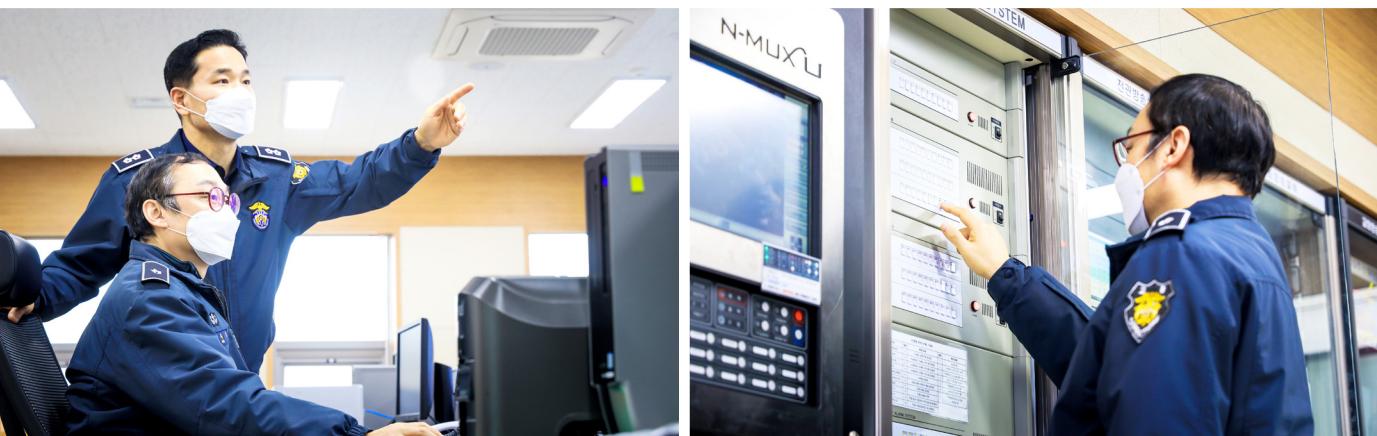


## 국민 안전 지키는 교정시설의 새 얼굴, 강원북부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는 2020년 11월 20일, 강원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전국에서는 17년 만에 새로 개청한 교정시설입니다. 지난해 개청 이후 강원북부교도소는 비교적 형기가 짧은 수용자 470여 명을 수용 중입니다.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으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신축을 이끄는 모범이 되고자 주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합니다.

## 전자 경비 시스템을 통한 수용자 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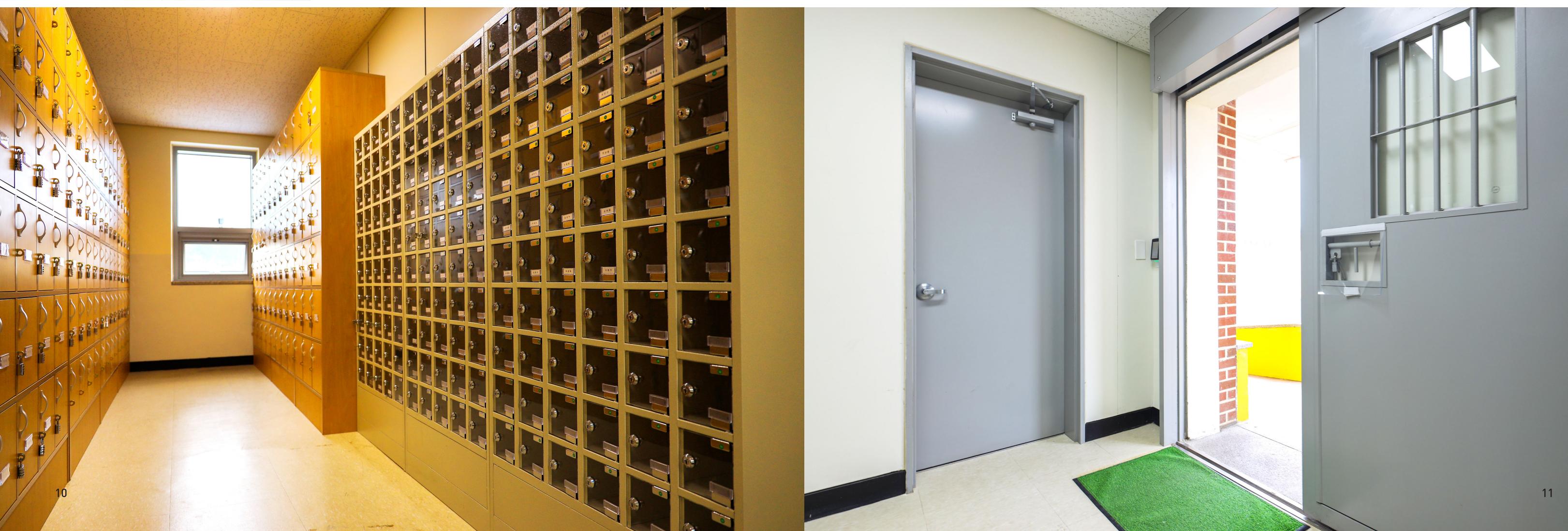
교정공무원은 중앙통제실에서 수용거실, 복도 등 교정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를 24시간 철저하게 경비합니다. 감지 센서를 활용한 비상 경보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 도주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최근 개정한 기관답게 최신식 CCTV와 비상 경보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보안과 수용관리에 적극 활용,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보안 강화로 예방하는 교정사고

교정기관은 보안이 우선시되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된 정문과 대형 검신기, 지문 출입 시스템, 정보 통신 기기 반입 금지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 도주, 금지 물품 반입 등과 같은 교정사고와 보안사 항 누출 등을 예방합니다. 교정시설의 보안을 위해 전국의 교정공무원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 걸음 물러난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인연



윤제림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 / 행복한 사람은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 /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 / (중략) / 모두 '사이 간(間)' 자가 붙은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 이 세 단어와 사이가 좋은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시간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가 있다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공간은 어떨까요?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머무는 곳과 사이가 나쁘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릴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 세 가지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사람 사이일 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떤 장면 하나. 하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원시시대 사람들의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화석 중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발자국을 보고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이건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에요. 이 간격을 한번 보세요. 서로 가깝고 아주 일정하게 나 있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었던 것 같군요." 친밀하고 다정한 사이. 손을 잡고 상대방의 보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사이. 오래전, 길 위를 걸어간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는지 가까이 붙어 있는 발자국은 보여 줍니다. 다정하게 나란히. 어쩌면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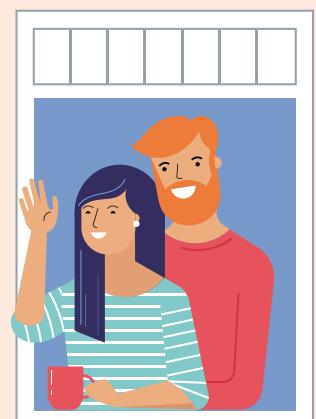
또 다른 장면 하나. 두 남녀가 카페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보통의 연인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 손이 달을 만큼 가까이에 있지만 사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헤어지는 중이거든요. 이별을 말하는 두 사람의 마음, 서로가 서로를 떠난 마음만큼 먼 거리가 또 있을까요? 둘의 마음의 거리는 평행선 같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거리,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해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리니까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장면일 겁니다.

나란히 걸었던 발자국만큼이나 마음도 친밀한 사이. 바로 앞에 있지만, 우주의 별과 별만큼이나 멀어진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누구나 전자인 관계를 꿈꾸겠지만, 모든 것이 다 가깝다고 좋은 사이일까요?

언젠가 추상미술 전시회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회화 작품 앞에서 도슨트는 그림 가까이에 서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그림은 캔버스 가득 어두운 색뿐이었습니다. 검은색과 검푸른색이 뒤섞인 그림. 어떤 형태도 없고 특별한 모양도 없이, 한 면 가득 물감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슨트는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그림을 봐 달라고 했습니다. 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그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의 거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방금 본 것과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냥 까맣게만 보이던 건 사실 밤하늘이었고, 검푸르게만 보이던 건 숲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볼 때는 짙은 어둠뿐이었지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보니 화가가 그린 밤하늘과 숲이 제대로 보였던 겁니다. 너무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더 잘 보이는 것. 일이나 고민, 사랑이나 인생도 그럴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다르게 보이곤 합니다.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갈 때는 예의 바른 사이가 됩니다. 오래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줍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종종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 하나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운 다짐과 계획들이 커피에 설탕 녹듯이 스르르 녹아 버린 일은 얼마나 많은가요.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 같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긋날 때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시작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행숙 시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한 걸음 물러섰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조금 더 모르고, 당신이 나를 조금 더 모르면,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좋은 사이일지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서로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기만 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는 일, 나는 나로 존재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그것이 혼자일 때도 함께 일 때도 괜찮은 사이가 되는 방법 아닐까요.



시선이 닿다

•  
지금, 이 사람

글 민경미 사진 홍승진

## 좋은 건축은

### 삶을 나아가게 한다

#### 임진우 건축가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 총괄 사장)

정체와 변화. 코로나19가 휩쓸 1년의 결과값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된 두 단어로 함축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뉴노멀을 제시했고, 건축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령 코로나19 직전까지 건축설계의 핵심 중 하나는 '공유'였다. 공유 오피스와 세어 하우스가 붐을 이루었고, 주거와 업무 공간 할 것 없이 개인 공간은 줄이고 공용 공간은 확장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이 흐름은 정확히 뒤집혀 개인 공간은 중시되고 공유 공간은 기피 대상이 됐다. 이를 도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직면했을 임진우 건축가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바라보고 수용했을까. 건축가로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가 추구하는 건축의 조건, 나아가 교정시설에 대한 '신박한' 생각까지 들어보았다.



#### 바르게(正), 그리고 건강하게 어우러지는(林) 공간을 짓다

임진우 건축가는 설명할 때 불박이처럼 따라다니는 몇 가지 연관 단어가 있다. 그중에서도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는 그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핵심 키워드다. 그는 올해로 창립 54년을 맞은 정림에 1986년 프로젝트 디자이너로 입사해 수석디자이너, 설계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6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그 사이 정림이 낳은 내로라하는 건축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정림을 이끌었던 6년 동안 창립 50주년과 본사 이전 등 굵직한 이슈를 통해 경영자로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물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금도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서 여전히 정림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N.I.D(Next. Integration. Design)랩을 통해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정림의 디자인 방향과 브랜딩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또 여러 건축 관련 협회 활동을 통한 대외적인 역할을 병행하며 정림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 매체에 실린 그의 인터뷰는 정림 이야기로 점철돼 있고, 대표 건축물을 거론할 때도 여지없이 정림을 앞세운다. 그에 의하면 정림은 그동안 청와대,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적으로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 외에도 병원, 빌딩, 쇼핑몰, 교회,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했다. 그러니 정림이 세운 건축물만 한데 모아도 웬만한 생활이 가능한 도시 하나쯤 완성되고도 남을 터. 임진우 건축가는 그간 정림이 설계한 건축물엔 DNA처럼 의식 하나가 공통적으로 스며들어 있다고 말한다.

"정림이 추구하는 건축은 건강한 공간 환경이에요. 특색만 도드라지거나 잔뜩 멋을 부린 건물이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심죠."





### 탈공간 시대에도 건축의 진화는 계속된다

물론 시대와 유기적인 관계인 건축의 특성상 건강한 공간 환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코로나19의 변화를 직시하고 수용해 나가고 있다. 콘택트(contact) 시대에 공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코넥트(connect)가 강화된 탈공간 시대라는 임진우 건축가는 결국 소유와 공유의 흐름은 다시 이어질 거라고 덧붙인다. 다만 코로나19를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건축설계에서 위생과 접촉을 고려한 설계가 필수가 되고, 베란다와 테라스가 버튼 하나로 외부로 확장돼 채광과 환기는 물론 카페 기능을 겸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인다. 분명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건축의 진화는 계속된다는 것. 요즘처럼 급박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거나 건축가로서의 본질 혹은 감성을 만지작거리고 싶을 때 그가 닿는 지점은 봉원교회일 때가 많다.

“정림에 들어온 후 처음 수행한 프로젝트가 봉원교회였어요. 건축가로서 덜 무르익었을 때라 서툴렀지만 그때만의 말랑말랑했던 감성이나 열정만큼은 두고두고 초심으로 데려가 주죠.”

당시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 빛을 머금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그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그는 이후 건축설계에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좋은 건축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건 그는 설계에 앞서 그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그의 설계도는 건축 용어와 선으로 변환한 유저들의 이야기인 셈. 실제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대서울병원 등 병원 설계를 할 때도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는 그는 같은 이유로 교정시설을 설계한다면 교정공무원들의 디테일한 일상과 생각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약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 그 연장선에 있는 교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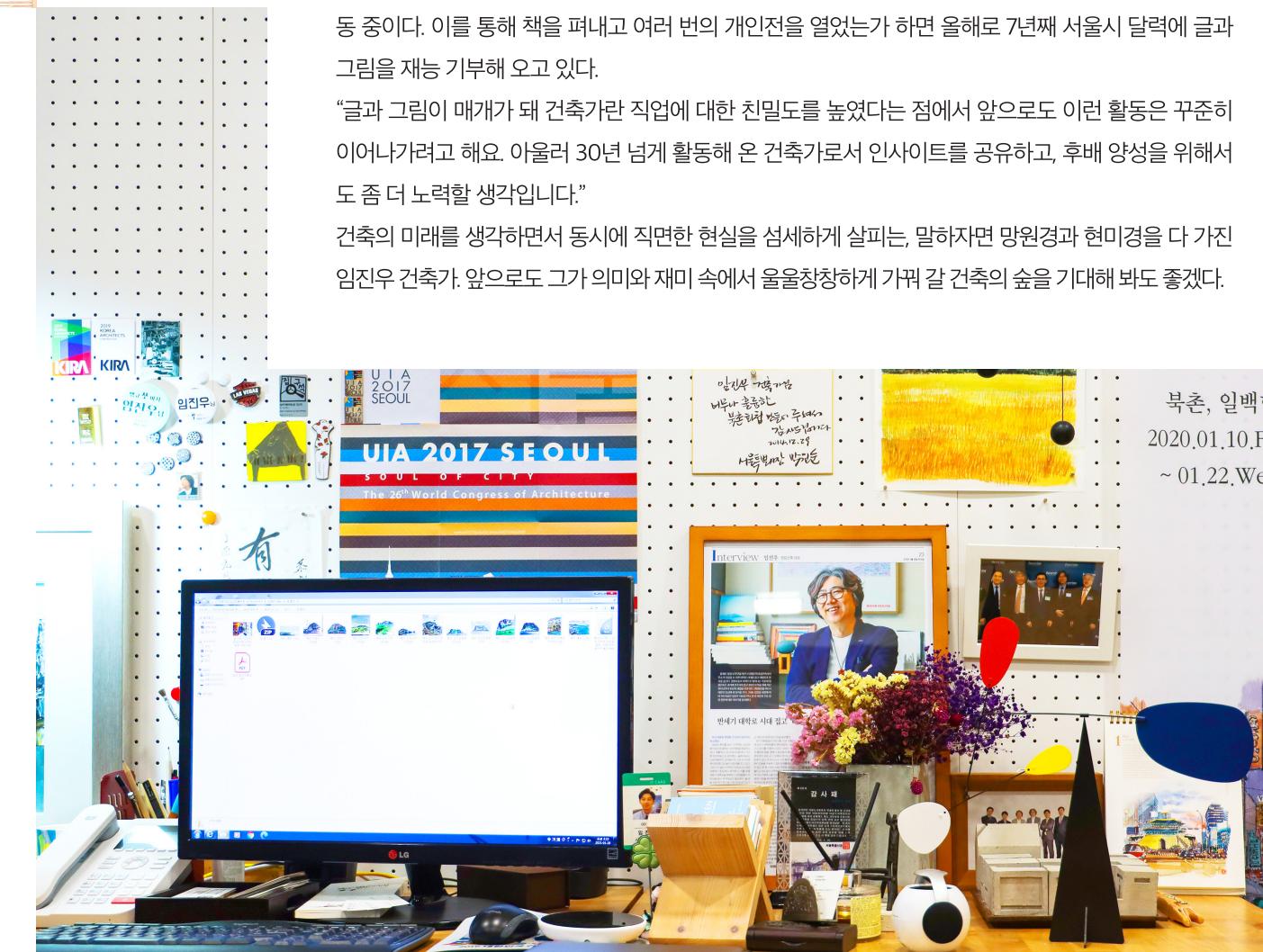
교회와 병원 등 몸이든 마음이든 기댈 곳이 필요한 이들의 공간을 주로 설계해 온 그는 교정교화가 필요한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정시설 또한 그 연장선에 두었다. 이쯤 되면 임진우 건축가는 생각하는 교정시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특유의 손맛에 상상력을 얹어 가상의 설계도 하나를 스케치 해낸다.

“과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상 고층형 교정시설이 전제될 때, 어떻게 자연을 끌어들일지 또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활동력을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한 공간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액티비티가 가능한 정원과 옥상에 햇볕을 찔 수 있는 루프톱 가든을 생각했고요. 자연 채광과 환기는 사람의 심리와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으므로 다공질 건물로 원활한 자연 채광과 환풍이 필요하겠지요? 다소 엉뚱한 생각이지만 각 건물을 서랍식으로 만들어 바깥으로 빼냈을 때 햇볕을 충분히 받고 환기를 시켜 주면 교정교화에 이로운 심리 형성과 더불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는 건축가가 건축설계를 통해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듯 수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교정교화를 돋는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30년 넘게 정림의 건축가로 일할 수 있었던 동력이 의미와 재미였음을 강조하며 교정공무원들도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면 일 외적으로 자신만의 여백을 만들고 리셋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그는 이른바 ‘부캐’인 칼럼니스트이자 화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책을 펴내고 여러 번의 개인전을 열었는가 하면 올해로 7년째 서울시 달력에 글과 그림을 재능 기부해 오고 있다.

“글과 그림이 매개가 돼 건축가란 직업에 대한 친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꾸준히 이어나가려고 해요. 아울러 30년 넘게 활동해 온 건축가로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건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직면한 현실을 섬세하게 살피는, 말하자면 망원경과 현미경을 다 가진 임진우 건축가. 앞으로도 그가 의미와 재미 속에서 울울창창하게 가꿔 갈 건축의 숲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감성풍경화첩’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머릿속을 리셋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간식  
여백을 만드는  
부디 많은 분들이 나의

북촌, 일백헌  
2020.01.10.Fri  
~ 01.22.Wed

‘감성풍경화첩’을 통하여 마음속에  
여백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서로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두기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방침이 됐습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시설 신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이를 넓히는 안전한 수용 환경을 조성할 때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적당한 사이를 두고 들어서는 교정시설은 따뜻한 교정행정을 펼쳐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더

끈끈하게

엮습니다



## 바비큐장을 장악한

### 애정 담뿍 '굽기 기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위 정상호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과  
시간에 따라 맛은 천차만별이다.  
캠핑장이나 펜션에서 흔히  
등장하는 고기와 조개도  
마찬가지다. 모처럼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마련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정상호 교위는 수년간  
쌓아온 굽기 기술을 자랑하며  
'잘 먹고 품 쉬는' 여행의 묘미를  
더했다.



※ 2월호 '부캐를 부탁해' 코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예약자가 없는  
펜션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 겨울날의 캠핑 감성을 채워 주는 펜션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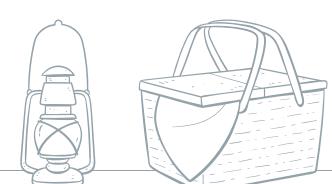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리고 입김이 나는 겨울날, 모닥불이나 화로를  
피워 놓고 캠핑을 즐기는 낭만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따뜻  
한 불에 꽁꽁 언 손을 녹이기도, 맛있는 고기와 조개, 소시지 등을 구  
워 먹기도 하면서 겨울밤을 보내는 낭만 말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의  
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방을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이 물음에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정상호 교위는 캠핑 감성이 가득한  
펜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몸소 겨울의 낭만을 소개하려 제  
부도로 펜션 나들이를 떠났다.

정상호 교위는 가족 나들이를 앞두고 '고굽램지'라는 부캐로 변신하  
고자 했다. 고굽램지란 스타 세프 '고든램지'에서 따온 것으로, 가족  
을 위해 고기와 조개를 열심히 굽겠다는 의지가 담긴 부캐명이다. 정  
상호 교위의 부인 서미정 씨는 고굽램지가 일회성 부캐가 아니라고  
말했다.

"남편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자상하고, 많은 것을 해 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굽는 역할은 여태 넘볼 수 없는 남  
편의 고정 역할이죠."

올해 고3이 된 큰딸 영은 양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작은딸 지은 양  
은 아빠 정상호 교위가 준비하는 비장의 무기 '굽기 기술'을 잔뜩 기  
대하고 있었다. 고기 담당 정상호 교위, 반찬 담당에 서미정 씨, 그리  
고 먹기를 담당한다는 두 딸은 열심히 집을 날랐다. 먹성이라면 뒤지  
지 않는다는 영은 양도 동생과 집을 나누며 재빨리 움직였다. 정상호  
교위의 차 트렁크에는 바비큐용 고기와 신선한 조개를 비롯해 새우,  
버너, 아이스박스, 게임 기구 등 펜션 나들이에 필요한 준비물이 가득  
했다. 이날 준비한 조개는 펜션 주인에게 추천받은 맛집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이미 역할을 정하고 온 듯 빨리 움직이는 네 식구의  
모습에서 철저한 준비성이 엿보였다.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살펴보  
며 서미정 씨는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말하지 않아도 제 몫을 척척 해냅  
니다. 몇 차례 여행을 다니다 보니 필요한 물건 등이 머릿속에 리스트  
로 정리돼 있어요."



## 따뜻한 날씨, 펜션 단독 이용, 애틋함의 3박자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집을 떠 가족들은 펜션에서 잠시 몸을 녹였다. 펜션을 예약한 일정은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였는데 며칠 전부터 일요일 밤 폭설이 예보되었다.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자 언제 맹렬한 추위가 닥쳤느냐는 듯이 날씨가 평소보다 더 포근했다. 정상호 교위는 “다행히 큰 눈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안심했다. 폭설 예보에도 정상호 교위 가족이 펜션 나들이를 떠난 이유는 고3이 된 영은 양이 3주 동안 기숙 학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상호 교위와 서미정 씨는 월요일에 미리 연가를 신청해 두었고, 두 딸도 일정을 비워 두었다. 따뜻한 날씨는 네 식구의 애틋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영은 양과 지은 양은 월간 <교정>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마냥 신기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직업이 교도관인 아빠가 더욱 자랑스럽단다. 영은 양은 “친근하고 친구 같은 아빠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라며 “가라앉은 분위기도 아빠의 재치로 금방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은 양도 “친구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하면 부러워한다”며 자랑했다. 두 딸의 칭찬 릴레이에 정상호 교위는 민망해하면서도 얼굴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띠었다. 그리고 “먹는 게 가장 기대된다”는 두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바비큐장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펜션 예약자는 정상호 교위 가족 단 한 팀이라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데 안심이 됐다. 안전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정상호 교위 가족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날씨부터 공간까지, 정상호 교위의 부캐 변신은 아주 순조로웠다.



## 목장갑, 집게, 치즈… 싱싱한 조개를 굽는 비법

펜션 바로 옆에 마련된 바비큐장에는 그릴에 숯이 올라와 있었다. 펜션에서 ‘부캐를 부탁해’ 코너의 취지에 공감하고 진행을 도와준 덕분이다. 정상호 교위는 목장갑을 장전(?)하고 집게를 들었다. 숯이 활활 타기 전까지는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기보다 조개를 먼저 굽기로 했다. 그렇게 정상호 교위의 부캐 고굽랩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릴 위에 조개를 올리자 타닥타닥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게로 요리조리 조개를 옮기며 집중했다. 조개를 집게로 잡기란 사실 꽤 어려워서 뜨거움을 참으며 손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런 고굽랩지의 굽기 기술에 넋이 나간 듯 조개는 성실히 끓내며 입을 벌렸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두 딸이 조개 위에 치즈를 올려 더욱 맛깔스럽게 보였다. 고굽랩지는 치즈까지 올라간 조개가 혹여 너무 익어 질겨질까 봐 그릴 가장자리로 옮겼다.

“평소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맞춰 캠핑을 하거나 펜션에 가는 편이에요. 작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2~3번씩은 꼭 다녀오곤 했어요. 그 덕분에 굽는 기술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조개가 익어 가는 동안 서미정 씨가 준비한 어묵탕도 보글보글 끓었다. 각양각색의 어묵과 대파, 버섯 등이 아낌없이 들어간 푸짐한 어묵탕이다. 서미정 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두 딸에게 더 신경 써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듣다”며 “대신 기회가 될 때마다 멋진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상호 교위와 서미정 씨에게 월간 <교정>의 ‘부캐를 부탁해’는 더욱 좋은 이벤트였다.

화력이 강해지고 나서는 본격적인 고기 파티가 시작됐다. 걱정했던 추위도 잠시 물러가고, 숯불과 모닥불이 따뜻하게 몸을 데워 주니 이보다 근사한 낭만이 어디 또 있으랴.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로움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고굽랩지라는 부캐를 확인하는 정상호 교위는 네 식구가 함께 하는 2021년 1월의 마지막 주말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의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본분을 다하고  
화합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변영권**(강원북부교도소 보안과 보안행정 교감)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화합할 때 비로소 좋은 성과와 행운이  
뒤따른다는 것. 여기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진리를 후배들에게  
전하려는 선배가 있다.

강원북부교도소의 변영권 교감이  
그 주인공이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원북부교도소 보안과 변영권 보안과 보안행정 교감입니다. 1993년 2월에 입사한 후 춘천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3월 강원북부교도소에 부임했습니다. 11월까지 개청 선발 요원으로서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했고, 개청 직후부터 보안행정 교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행정 교감은 이름 그대로 보안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보안과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계획하며, 보안과 직원들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죠. 일반 기업의 기획 및 행정 부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교감님의 업무 중점 사항이  
궁금합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직원들의 화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과 안정화를 위해 자원해서 모인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직원들의 이야기를 틈틈이 귀 기울여 듣고 개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애쓰고 있죠.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진심으로 소통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신념이자 업무 원칙입니다.



66

다른 교정기관들도 주변 여건에 따라 제각기 특징과 장점이 있으니 그 점을 잘 살린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99



66

각 교정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당면한 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99

**Q.** 지금껏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인천구치소에서 보안과 조사팀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한 수형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발견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안타깝게 소생하지 못했죠. 사망 후 그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는데, 뜻밖에도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가족의 숭고한 뜻을 병원 측에 전달했고, 그 수형자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장기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비록 사회에서 죄를 지어 교정기관에 온 수형자지만 적절한 교화와 깊은 자기반성이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후배 교정공무원들도 수형자를 선(善)으로 이끄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면, 일에 대한 보람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업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부임하고 보니 강원북부교도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벗 삼으며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죠. 8km 길이의 영랑호 돌레길을 걸으며 속상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동해의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름을 잊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는 저 멀리 보이는 설악산과 울산바위에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 주세요’라고 기원하죠. 다른 교정기관들도 주변 여건에 따라 제각기 특징과 장점이 있으니 그 점을 잘 살린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Q.** 함께 일해 온 동료들 중 기억에 남는 선배를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일한 동료들 모두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네요.(웃음) 그중에 개청 선발 요원으로 강원북부교도소에 오신 한 선배가 계세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연세에도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허드렛일도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해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선배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후배도 떠오르네요. 교정공무원으로서 100점을 주고 싶을 만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동시에, 퇴근 후에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목표를 하나씩 이뤄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겸도를 열심히 배워서 단종을 떠더니, 얼마 전에는 서예 개인전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 후배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은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 교정공무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반복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업무 중 돌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때 각 교정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당면한 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교정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 및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꾸준한 체력 단련과 자기 계발도 무척 중요합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야간 근무에 적응하기 어렵고, 심신의 균형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 몸 쓰는 재미도 느끼고, 체력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후배처럼 자기 계발에도 힘쓴다면,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년퇴직이 5년 정도 남았는데요. 강원북부교도소의 개청 선발 요원으로서, 이곳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적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아울러 퇴직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모범적인 선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가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자신에게 떳떳한 교정공무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로를 날리는 ‘잇템’의

## 힘찬 격려

### 강원북부교도소

직장인은 피로가 가득한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한다. 피로 해소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방법도 있다. 월간 <교정>은 지난해 11월 개청한 강원북부교도소에 누구나 공감할 만한 피로 해소 ‘잇템’을 선물했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이 고른 물품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 개청 준비부터 수용동 관리, 코로나19 방역까지

#### 동료들의 노고를 들여다보다

2020년 11월 20일에 개청한 강원북부교도소는 자발적 지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교정공무원들이 모인 교정시설이다. ‘다양성’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기관인 만큼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끄는 것이 큰 고민거리다. 개청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교정시설에 구비해 둔 직원 복지용 물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월간 <교정>은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하고, 필요한 물품을 선물 받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정인 원피’ 코너 진행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품었던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은 개청 전후 동료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동료들의 노고를 돌아본 것이다. 개청식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총무과 직원들을 비롯해 평소 수용동 관리로 밤낮없이 애쓰는 보안과 직원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의료과 직원들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전 직원이 방역에 온 힘을 쓰기까지 했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은 이번 이벤트가 한 명 한 명의 업무를 살펴보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에게 이번 ‘교정인 원피’은 더욱 반가운 이벤트였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격려이자 힘차게 출발하는 힘이 됐기 때문이다. 서로의 힘든 상황을 보듬어 주며 화합하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은 무엇일까.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이 신청한 물품에는 저마다의 필요가 엿보이기도, 교정공무원의 노고가 드러나기도 한다.

강원북부교도소에 찾아온 월간 <교정>팀을 마주하자마자 직원들은 선물 상자를 하나씩 열어 보며 들뜬 기분을 마음껏 표출한다. 작은 선물에도 무한한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월간 <교정>팀과 함께 선물 목록을 고민했던 총무과의 양인호 교위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 주어 놀랍다. 새로 개청한 기관이라 물품이 부족하고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선물이 와서 든든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강한 바람과 추위에 맞서는 내 몸 지킴이

#### ‘귀마개’ & ‘보온 장갑’

속초시에 자리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역 특성상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하는 업무가 동반된다. 강원도는 폭설도 자주 내리니, 다른 지역에서 온 교정공무원들은 강원도의 겨울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물 내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다. 강추위를 이기려면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칼바람에 떨어질 것 같은 귀를 보호해 주고 꽁꽁 얼어 새빨개진 손을 감싸는 물건은 당연히 ‘귀마개’와 ‘보온 장갑’이다. 보안과 노창혁 교도는 “순찰 업무 시 외부로 나가기도 한다. 강한 찬 바람을 맞다 보면 손이 트고 온몸이 긴장되는데 귀마개와 보온 장갑 덕분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겠다”며 기쁨을 표했다. 특히나 교정시설은 보안 시설이라 문마다 단단한 자물쇠가 달려 있는데 보온 장갑을 착용하면 자물쇠를 잠글 때마다 느끼는 아찔한 차가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귀마개와 보온 장갑이 추운 야간 시간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이다.

### 체력은 향상시키고 자신감은 높이고

#### ‘악력기’ & ‘휠 롤러’

언제 일어날지 모를 교정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원들은 자신감을 높이려면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운동 시설이 문을 닫은 요즘 ‘악력기’와 ‘휠 롤러’는 체력 향상을 이끄는 대안이다. 악력기는 근무하는 틈틈이 쓸 수 있는 운동 기구로, 사무실 내에서 쓰기 좋다. 총무과의 김지명 교위는 “보안과로 갔을 때 자신감을 얻기 위해 악력기를 총무과 사무실에 놓고 사용하며 틈틈이 근력을 기를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의료과 유승환 간호주사보는 평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체력 소모가 상당해 턱걸이나 철봉, 평행봉 등의 맨손 운동을 즐겨 한다. 그는 “코로나19 방역기를 등에 매고 소독을 했는데 힘들었다. 휠 롤러로 코어 근육을 더욱 단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과 직원들이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의료과 사무실 내에 휠 롤러를 비치할 예정이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강원북부교도소 직원 모두가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른 아침과 늦은 밤, 피곤은 저 멀리

#### ‘커피 머신’ & ‘텀블러’

카페인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커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풍onga한 정신을 맑게 하기도 하고 몰려오는 잠을 쫓으며 밤늦도록 이어지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니 말이다. 교정공무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진 교정공무원들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과 커피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관해 주는 ‘텀블러’는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보안과의 표수진 교위는 “수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커피 머신이 잠을 이겨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한다. 총무과의 권미정 교위는 “교정시설 인근에는 카페 등이 없어 커피를 사 오기 힘들었는데 커피 머신과 텀블러가 있으니 7시 출근도 거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원북부교도소는 모든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관 1층 휴게실과 보안과에 각각 커피 머신을 두기로 했다. 휴게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기에 직원들의 피로는 슬그머니 종적을 감춘다.



일상을 펼치다

• 힐링 메신저

글·사진 서영진(여행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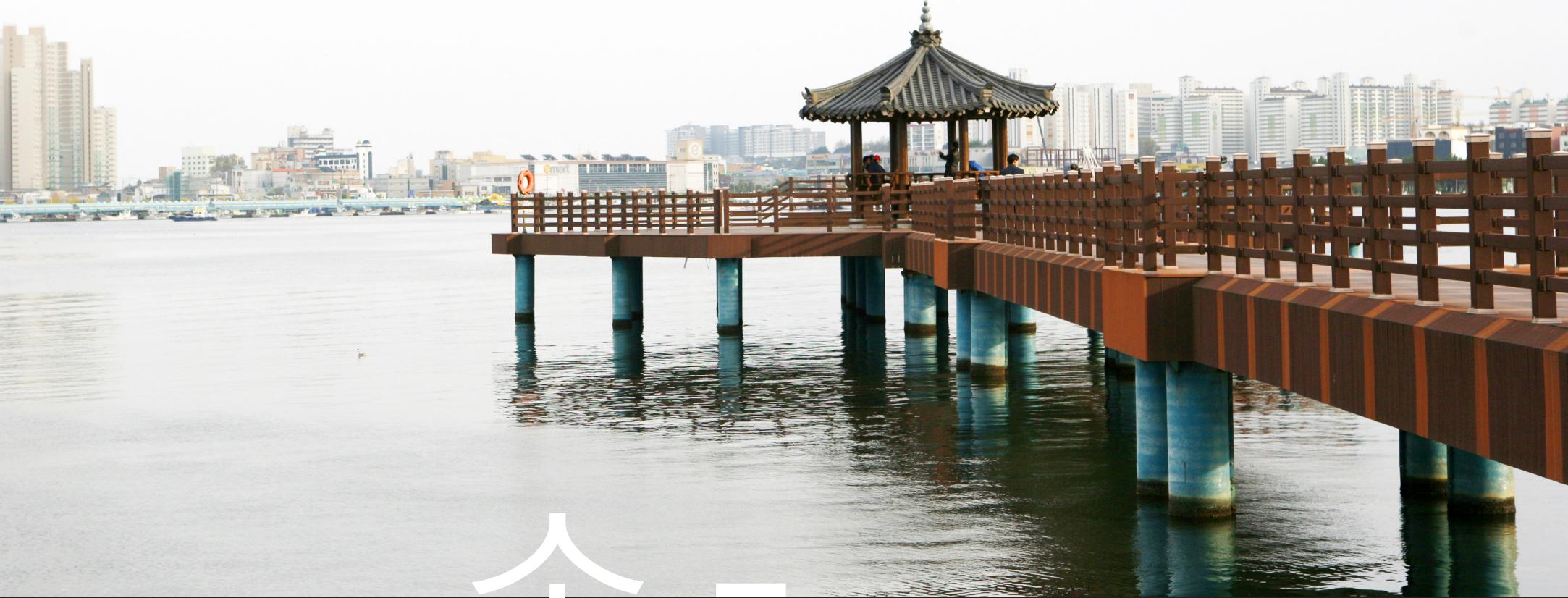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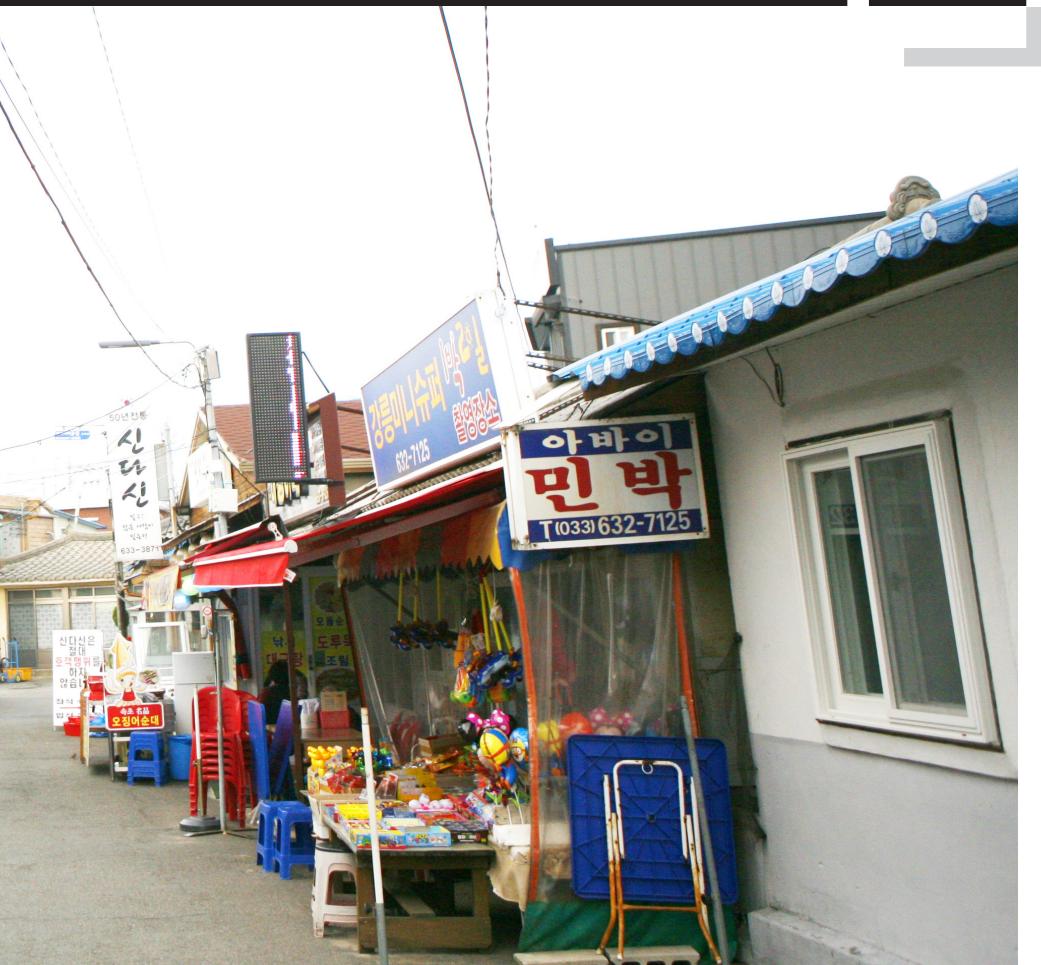
## 겨울 산책 이끄는 청초호

'강원북부교도소'를 품은 속초의 길목은 오붓하게 걷는 멋이 있다. 호수와 포구, 변화가와 시장이 불현듯 연결된다. 겨울 산책을 이끄는 속초의 명소는 청초호다. 둘레 5km의 청초호는 철새생태공원, 청초호해상공원 등 테마 공간이 나무 데크 길로 이어져 있다. 철새생태공원은 갈대밭 사이 청둥오리, 쇠오리 등 철새가 날아드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원 주변으로는 엑스포타워가 솟아 있고 요트 선착장이 이어진다. 멀리 속초항 포구로 걸으면 청초호해상공원의 청초정까지 호젓한 둘레길이 나란히 흐른다.

호수와 파도,

포구 사이를

서성이다



속초

겨울, 속초의 바다와 골목을 서성이는 것은 운치 있다. 호수와 파도, 향수 깃든 포구와 마을이 어우러져 발걸음마다 상념을 더한다.  
속초 '강원북부교도소' 인근에는 바다향 머금은 여행자들이 가지런하게 들어서 있다.



## 속초의 근대사 담긴 아바이마을

청초호에서 속초항 가는 길에 위치한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근현대사가 묻어나는 곳이다. 아바이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1·4 후퇴 때 내려왔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학생도 피란민들이 정착한 동네다.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방영되며 인기를 모았던 동네는 아바이순대를 간판으로 내건 순댓국집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올망졸망한 골목길을 벗어나면 학경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이' 동상과 아담한 간이 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바이마을에 들어설 때는 갯배를, 나올 때는 금강대교를 이용해 본다. 아바이마을과 중앙동을 잇는 갯배는 밧줄로 당겨 운행하는 무동력 배로 추억의 향취가 묻어난다. 우회하는 금강대교 위를 거닐면 마을 정경과 속초 바다가 한눈에 담긴다.



영금정



파도 소리 아득한 영금정

따끈한 겨울 명소 척산온천

실향민 문화촌과 설악산 권금성

동해의 숨은 일출 포인트, 옵바위

시린 겨울 바다는 속초 나들이를 사색으로 이끈다. 동명항 인근의 영금정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에는 파도 소리가 더욱 차갑고 또렷하다. 영금정 인근의 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속초의 해안선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설악항과 가까운 해맞이공원은 한적한 휴식과 함께 해돋이를 선사하는 곳이다. 공원 산책로에는 조각상이 용기종기 들어서 있다. 파도를 맞고 솟아 있는 연인 인어상은 ‘영원한 사랑이 이뤄진다’는 사연이 담겨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외옹치항은 활어 난전으로 미식가들 사이에 유명한 포구였다. 군사 지역이었다가 68년 만에 개방된 외옹치항 둘레길(바다향기로)은 tvN 드라마 <남자친구>의 배경이 된 뒤 ‘핫’한 명소가 됐다.

속초의 따끈한 겨울 명소는 척산온천지구다. 척산온천은 호수, 포구 산책과 설악산 산행으로 언 몸을 훈훈하게 녹여 준다. 1970년대 초반에 첫 개장한 이래 쏠아지는 용천수와 함께 50년 세월을 채워 가고 있다. 이곳의 온천수는 강알카리성이며, 온도는 50°C 안팎을 유지한다.

척산온천이 자리한 노학동은 예전부터 ‘온정리’, ‘양말’로 불리던 따뜻한 동네였다. 겨울에도 땅과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고 김이 솟아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날개를 다친 학 한 마리가 이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상처를 치료했다는 전설과 함께 ‘학사평’이라 불리기도 했다.

1985년 원탕 자리에 척산온천 휴양촌이 새롭게 개관하며 온천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척산온천탕, 족욕공원 등이 들어서며 온천지구의 외관을 갖추게 됐다. 또 별도의 가족탕도 마련돼 있다. 이곳 노천온천에 누우면 설악산의 산세가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척산온천 인근의 실향민 문화촌은 이북 5도 가옥을 비롯해 실향민들이 아바이마을을 형성했던 당시의 단칸방 골목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았다. 실향민 문화촌과 함께 속초박물관, 밭해역사관 등이 한데 모여 있다. 문화촌 방문 때는 하루 두 차례 펼쳐지는 풍물패 공연 시간에 맞추면 신명 나는 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속초에서는 설악산 유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설악산 권금성은 한 번쯤 들렀던 설악산의 추억을 부추기는 곳이다. 정상 반석 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속초 시내와 동해의 모습이 장관이며 케이블카 종착점 하단에 위치한 안락암, 800년 된 무학송 등도 함께 둘러보면 좋다. 설악소공원 초입에 위치한 신흥사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들리는 설악산 초입 산책 코스다.

속초 도심 북쪽 영랑호는 자전거 마니아들의 성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영랑호에서 포장마차가 늘어선 장사항, 속초 카페거리로 연결되는 길도 운치가 느껴진다.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내달리면 속초와 고성의 경계를 넘어 공현진 포구로 이어진다. 공현진 옵바위는 동해의 숨은 해돋이 명소 중 한 곳이다. 변잡한 속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하게 일출을 즐기기에 좋다. 포구 방파제 옆 옵바위 일출은 추암, 정동진 등 강원도의 일출 명소와 견줘 손색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게 매력이다. 겨울이면 방파제와 나란히 붙은 옵바위의 소담스러운 빈 공간 사이로 해가 뜬다. 공현진 포구 인근에는 송지호와 왕곡마을이 들어서 있다. 겨울 송지호에서는 철새 구경을 할 수 있고, 왕곡마을에서는 아랫목 뜨끈한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 묵을 수도 있다. 속초 시내에서 공현진 포구까지 시내버스가 오간다.

## 버릴 때도 관심이 필요한 올바른 '택배' 쓰레기 처리법

인터넷 등으로 각종 물품을 주문하고 택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택배를 받고 나면 종이 박스나 비닐, 스티로폼, 에어 캡, 아이스 팩 등이 쌓이기 때문이다. 택배로 받은 물품보다 뒤처리해야 할 택배 쓰레기의 부피가 더 클 때도 있다. 그렇다면 택배 쓰레기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가장 많이 쓰는 택배 포장 '종이 박스' 이 물질 제거하고 비에 젖지 않게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종이 박스 포장이다. 종이는 다른 재질보다 빨리 썩으므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 하지만 택배 종이 박스를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택배 종이 박스의 올바른 배출법은 택배 송장과 접착 스티커, 테이프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다. 다만 박스가 금박지나 은박지 등으로 코팅돼 있다면 종이류로 분류되지 않으니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또 종이 박스가 오염되거나 물에 젖으면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배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 냉동실에 쌓여 가는 '아이스 팩'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반납해야

식료품을 주문하면 스티로폼 박스와 함께 아이스 팩이 떨려온다. 이 아이스 팩은 '언젠가 다시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냉동실에 보관하다 결국 한꺼번에 버리기 일쑤다. 아이스 팩 안에 든 젤 형태의 내용물은 사실 99%가 물 성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1%의 고흡수성 폴리머가 섞여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수가 없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플라스틱이라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 보내면 수질이 오염된다. 그러므로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행정복지센터의 아이스 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최근에는 특정 업체가 아이스 팩을 반납하면 혜택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니 잘 찾아보고 참여하면 분리수거도 하면서 혜택도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Tip 가정에서 아이스 팩 활용하기

##### ① 향이 오래 지속되는 방향제 DIY

아이스 팩의 고흡수성 폴리머는 액체뿐만 아니라 향까지도 듬뿍 머금는다. 방향제용 병 등 유리병에 아이스 팩 속 내용물을 넣고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자. 향이 오랫동안 은은하게 퍼지는 근사한 방향제가 완성된다.

##### ② 장기간 집을 비워도 화분의 흙을 촉촉하게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물을 듬뿍 주어야 하는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아이스 팩이 유용하다. 먼저 집을 비우기 전 화분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 그 위에 아이스 팩 속 내용물을 올리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아이스 팩 속 내용물이 물을 공급해 주므로 화분이 말라 죽을 걱정은 없다.

### 택배 송장이 분리되지 않는 '비닐 포장재' 끈끈이와 스티커 자국 모두 제거해야

온라인 쇼핑으로 옷 등을 주문하면 주로 비닐 포장재에 담겨 배송되곤 한다. 이 비닐 포장재는 보통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소재로 된 경우가 많다. 이 HDPE는 해로운 화학 성분이나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는 무독성 친환경 소재라 종량제 봉투에 흔히 쓰인다. 하지만 HDPE 비닐 포장재를 재활용하려면 가위가 필요하다. 비닐 포장재는 택배 송장과 접착 스티커를 완벽하게 떼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택배 송장의 스티커 자국과 끈끈이 등을 가위로 모조리 자른 후 온전한 비닐만 따로 배출해야 한다. 비닐 포장재도 조금만 가위질을 하면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교정공무원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위에 소개된 택배 쓰레기 배출법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스티브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 직장인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코로나19로 우리네 삶은 이전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워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다가온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들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느낀 일상의 변화는 무엇인지 들어 보자.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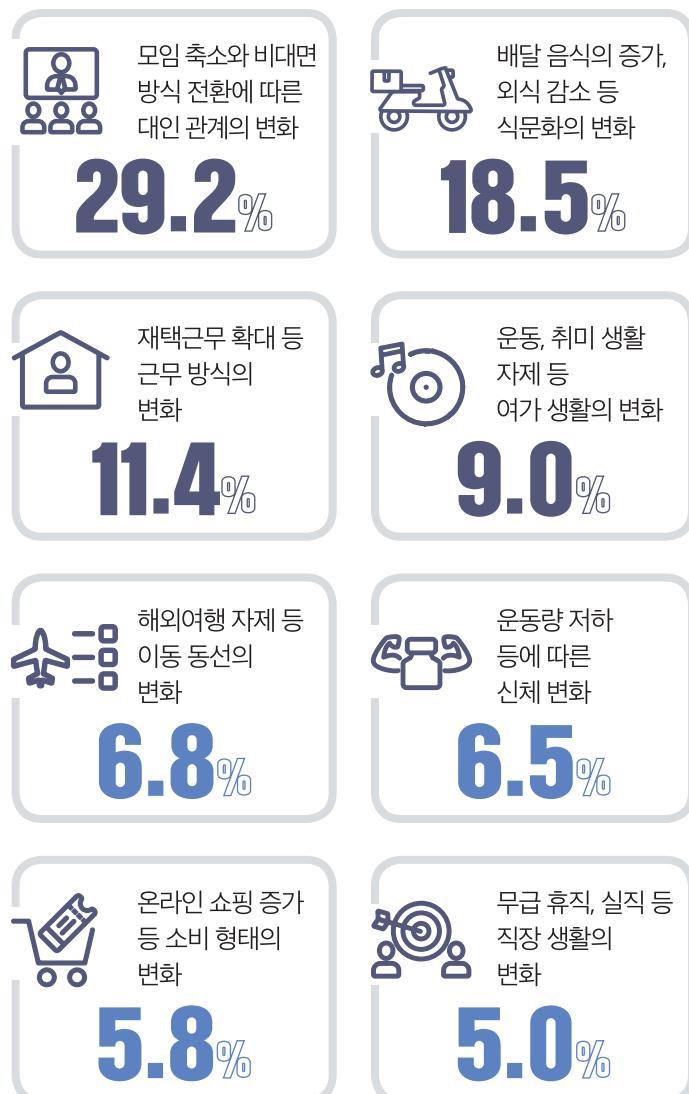
## 직장인이 생각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1위, '대인 관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일상생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크게 변한 것 1위는 '모임이 줄어들거나 비대면 방식 전환에 따른 대인 관계의 변화'(29.2%)였다. 그다음으로는 '배달 음식의 증가, 외식 감소 등 식문화의 변화'(18.5%), '재택근무 확대 등 근무 방식의 변화'(11.4%) 등이었다. '무급 휴직, 실직 등 직장 생활의 변화'(5.0%)를 겪었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다른 직장인과 달리 근무 방식이나 직장 생활의 변화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공무원은 수용동 계호가 주된 업무인지라 재택근무를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실직 위험도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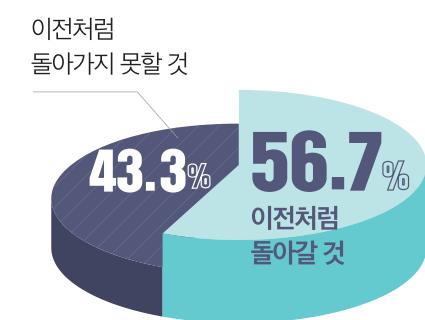
## 코로나19가 바꾼 직장인의 생활



##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는 비슷, 직장인 70%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다"



## 코로나19 종식 후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에 적응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감염병의 위험도 점차 물러날 것이다. 특히나 대표적인 3밀 시설인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새로운 일상 적응과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 코로나19 방역 수칙

###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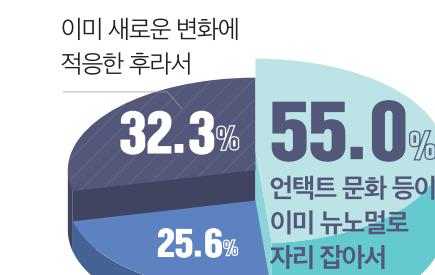
- 1** 평소 실내·외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나요?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들의 경우도 살펴보세요.
- 항상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2**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나요?
- 5인 미만 사적 모임  
 전화 통화, 메신저 등으로 교류  
 휴식 시간을 활용한 티타임  
 가끔씩 식사 및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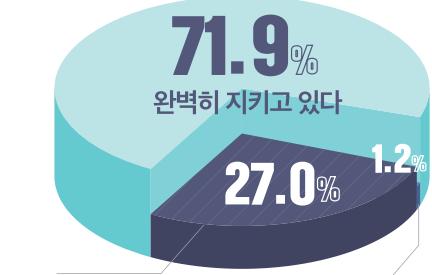
- 3**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지치더라도 끝까지 준수할 것이다.  
 나만 지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가끔씩 풀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보다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생을 보낼 수 있을까? 사람인이 직장인 1,596명과 구직자 1,989명 등 총 3,585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56.7%)가 '이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43.3%)이라는 응답도 비슷했다.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언택트 문화 등이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아서'(55%), '이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 후라서'(32.3%) 등을 언급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71.9%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른 방역 수칙을 '완벽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으나, '일부만 지킨다'거나 '신경 쓰지 않고 생활한다'는 응답도 약 30%를 차지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지치거나 주위에서도 잘 지키지 않아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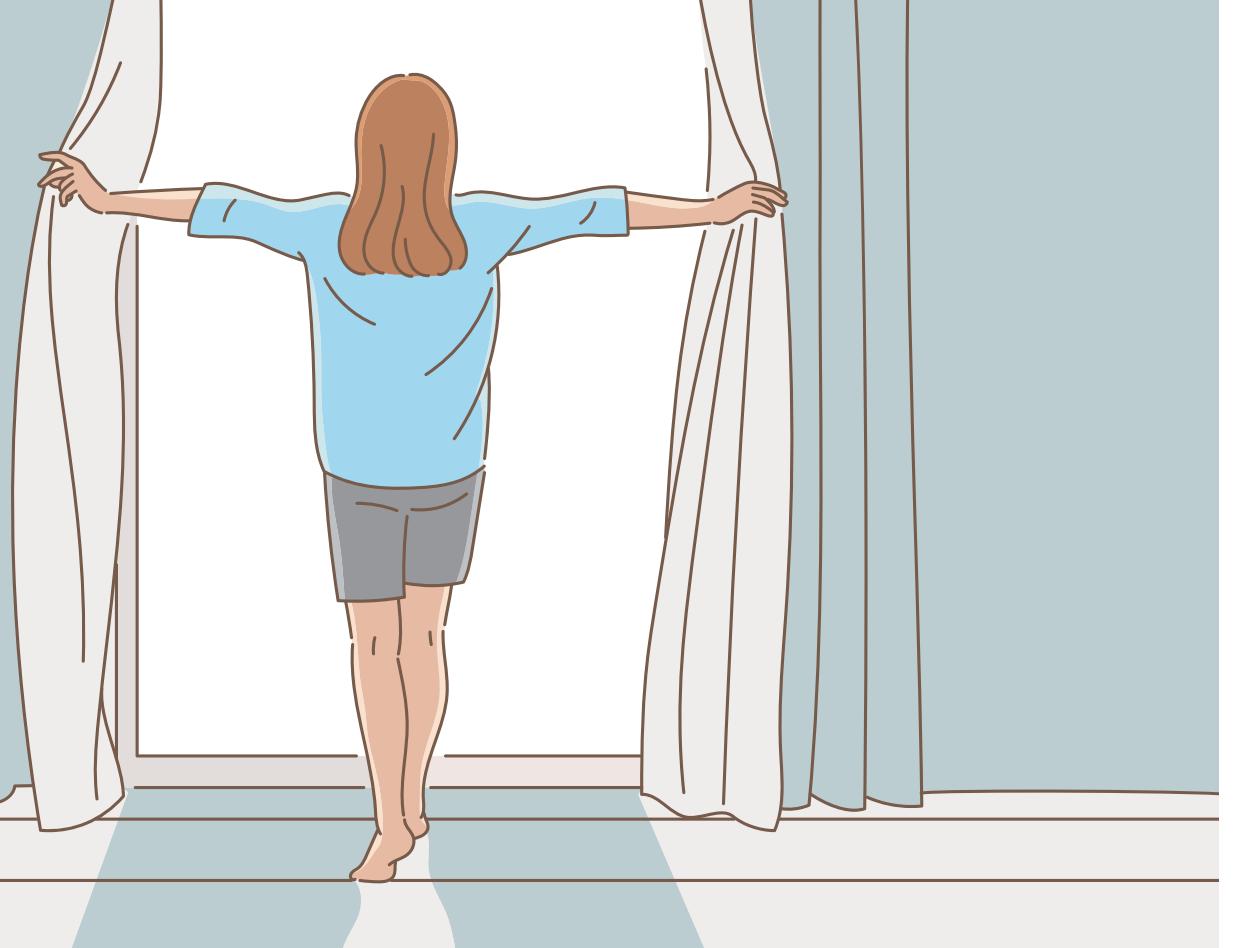
## 왜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할까?



##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있나요?



## 냉정과 열정, 갈등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



### 내 안의 코끼리를 잘 다스리려면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자리에서 푸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냉각기를 갖고 천천히 푸는 것이 나을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만큼 인간관계가 어려운 경우도 없다. 우리는 흔히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비이성과 충동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망치기 쉬운 것은 비이성보다는 충동이다. 정서적 표현은 좋지만 충동이나 감정적 언사는 관계를 해친다. 오래된 관계마저 파국으로 몰고 가기 일쑤다. 충동을 꽉 붙들어 매고 싶지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 학자들은 인간을 코끼리와 기수의 결합으로 비유한다. 코끼리에 올라탄 기수만이 아니라, 때로 난폭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코끼리 역시 인간인 것이다. 내 안의 코끼리는 이끄는 대로 잘 움직일 때도 있지만, 난동을 부려 엉망진창을 만드는 일도 잦다. 문제는 갈등 상황에서 코끼리의 힘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지선 씨는 욕하는 마음에 절친한 친구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했다. “너 같은 건 친구도 아냐!” 친구가 자신의 연애에 대해 불편한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계속 만나면 너만 괴로울 뿐이야.”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선 씨는 남자 친구와 헤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의 연애와 연인을 나쁘게 말하

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 상담에서 사정을 들은 것은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필자는 욕하는 일이 많다던 지선 씨에게 요가와 마음챙김 명상을 권했다. 두 가지 덕분에 지선 씨는 감정이 끓어오르는 일이 많이 줄었다. 그 뒤로 지선 씨는 몇 번 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계속 그랬다면 모든 관계가 주변에서 종적 없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처, 냉각기를 갖고 풀어내기를 택해야 한다.

### 갈등 풀기의 열쇠, 진심 어린 사과

지선 씨에게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기를 반복하는 관계도 있지만, 싸우고 나서 관계를 끊는 편이 더 흔하다. 특히 한쪽의 실수가 큰 상황이라면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우리는 빠르게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이다. 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사과를 한다 해도 상대가 변명이나 회피로 느끼면 소용이 없다. 상대가 납득할 만한 사과여야 한다. 그러면 사과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과’에 대해 연구한 김호 박사에 따르면 제대로 된 사과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상대방에게 불편, 고통, 피해를 주어 미안하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정말 미안해. 정말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한 말이야.”
-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된 건 다 내탓이야.”
- 치유와 보상을 밝힌다. “부족하지만, 이러저러하게 깊을게.”
-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린다. “내 실수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어.”
- 충분한 해명도 필요하다. 변명과는 다르다. “내 실수가 맞지만, 내가 그랬던 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었어.”
- 앞으로의 대책을 언급한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러저러할게.” “요즘 육하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있어.”

지금 만날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 애쓴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최대한 반박한다. 3단계, 지금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가치,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얻게 될 관계의 가치, 소통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즐거운 기억에 접속한다. 마음속에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이미지나 대상을 떠올려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운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이다. 이제 상대와 본격적으로 대화한다. 4단계, 비언어적 신호를 관찰한다. 상대의 표정, 몸짓, 포즈에 세심하게 주목하기 바란다. 상대에게 기회를 봐서 감사를 표현한다. 5단계,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다. 가급적 천천히 말한다. 6단계, 생각한 것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한다. 최대한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알려 준 방법대로 친한 사람부터 조금 덜 친한 사람까지 조금씩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사람마다 사과의 문이 닫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너무 늦으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은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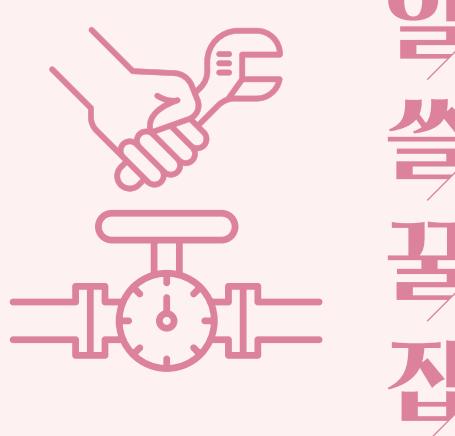
### 대화하기 전, 마음 가다듬기

지금 당장 그 사람과 갈등을 풀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자기 안의 코끼리를 믿기 힘든 사람, 대화할 때마다 욕하는 마음이 자주 솟구치는 사람이라면 연민 소통(Compassionate Communication)을 배워 보기 바란다. 앤드루 뉴버그는 대화를 잘 이끌고 싶다면 자기 뇌부터 길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민 소통 역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다. 이는 중요한 대화를 하기에 앞서 마음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긴장을 품다. 30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5까지 세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5까지 세라.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면 된다. 자신의 한 손을 쳐다보며,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2단계, 내면의 침묵을 강화한다. 스마트폰으로 풍경 소리를 15~30초 정도 들어 보라. 또 긍정적인 기운을 높인다.

### 나를 다치게 하는 관계라면 반품해도 좋다

사람과의 갈등이 힘든 것은 이 관계를 다칠까 하는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관계에 환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을 풀 수 있다’와 같은 관계 만능의 사고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관계만이, 사람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 안달복달하는 마음도 조금 초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몇 사람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생길 일은 많지 않다. 사람 볼 줄 아는 힘이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안 된 일이지만, 그 사람이 해를 입히는 것을 나중에 알 수도 있다. 그런 관계라면 조금 아까운 것 이 있더라도, 아니 조금 앓는 것이 많아도 과감히 반품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에 나보다 아까운 것은, 내가 상처 입는 것보다 나쁜 일은 없기 때문이다.





##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겨울철 동파 방지 편

한파가 잦은 겨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올해처럼 방한용품이 유용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영하 17~18°C를 오가는 혹한이 며칠씩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동파로 곤란을 겪는 곳도 늘었다. 이상 기온 현상의 영향이라고 하니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방심할 수도 없는 노릇. 지금이라도 단단히 대비해 두자.

### 이것만은 꼭! 동파 방지 필수품, 보온재

1

#### 담요와 현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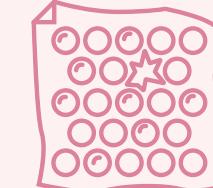
온기가 필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수도 계량기나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이 한파에 얼어 터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안 쓰는 담요나 베릴까 말까 고민 중이던 현옷을 보온재로 활용해 보자. 계량기 주변이나 배관을 잘 감싸 훌려내리지 않게 노끈이나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요령. 눈이나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덮거나 감싸 두면 더욱 좋다.



2

#### 스티로폼 또는 빽빽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한파가 찾아오면 날이 밝기 전 새벽이 가장 춥게 마련이다. 현옷과 담요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면 스티로폼이나 일명 빽빽이(에어캡)를 추가로 활용해 보자. 비닐봉지나 김장비닐에 납작한 스티로폼을 붙여 현옷(담요)을 감은 배관과 계량기를 덮거나 감은 후 비닐로 한 번 더 감싸 준다. 빽빽이를 두껍게 감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 유리섬유 등 전문 보온재

보일러 배관은 가동 시 열이 발생하므로 합성섬유로 된 담요나 현옷, 비닐을 잘못 감으면 자칫 녹거나 놀어붙을 수 있다.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보온재는 고온에도 녹지 않는 데다 배관을 감아 두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들이는 수고도 적다. 배관의 굵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배관의 굵기를 확인해 두자.



4

#### 전기열선

전기열선은 편의성이 높아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그만큼 과열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증가 중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열선은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가 있고, 과열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기타 보온재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지니 절대 금물이다. 열선을 중첩해 감는 것도 위험하다. 설치 전에는 절연피복 손상 여부를, 설치 후에는 열선의 피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예방과 안전은 미리미리 해빙은 느리게 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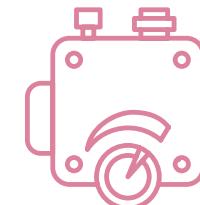
### 수도 동파 예방에 특효 줄줄줄!

기온이 영하 5°C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계속된다면 물을 줄줄줄 틀어 두는 것이 특효다. 그렇다면 줄줄줄이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영하 5°C 이하일 때는 종이컵이 1분 이내에 가득 차는 속도로, 영하 10°C 이하라면 30초 이내에 종이컵이 가득 차도록 물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물을 틀어 둘 때는 수전이 온수 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해 미지근한 물이 흐르도록 하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는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기억해 둘 것.



### 절약과 동파 사이 최선은 외출모드

수시로 한파가 찾아드는 시기나 조건이라면 절약보다 동파 이후의 고통과 비용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두고 한파 시에는 희망 실내 온도를 높이는 융통성을 발휘하자. 특히 한파가 이어지는 시기라면 절대 보일러를 끄지 말 것. 보일러를 끄는 경우 내장된 동파 방지 기능도 함께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꽁꽁 얼었다면 펄펄은 NO 따뜻하게 천천히!

꽁꽁 언 곳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뜯게 되면 온도 차로 인해 파손이 생길 수 있다. 차갑게 식힌 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급격한 열팽창으로 인해 컵이 깨져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심각한 동결 상태가 아니라면 따뜻한 물을 천천히 부어 녹이는 것이 좋다. 배관의 경우 온수를 턴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열을 가해 준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의존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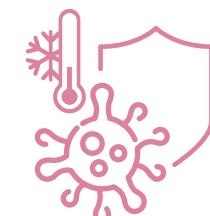
### 안전을 위해 행거 두자 소방용품

추운 겨울,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면 화재 위험 또한 높아진다. 만에 하나를 대비하고 싶다면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즉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 말식 소화기는 몸통에 적힌 내용연한(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흔들어 내용물이 굳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내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폐기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한파를 따라오는 또 다른 불청객, 곰팡이 결로 방지 위해 실내외 온도 차에 주의!

한겨울에 웬 곰팡이 얘긴가 싶겠지만 한파가 지속된다면 실내 곰팡이 번식도 주의해야 한다. 실내와 실외 온도가 15°C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실내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로 창틀, 창, 베란다 등에 결로가 자주 생기는데 방지할 경우 곰팡이 번식으로 이어지기 심상이다. 결로를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고 정기적인 환기로 실내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창호용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재습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미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제거한 뒤 곰팡이 방지제를 뿐만 후 도배나 페인트칠 등을 해야 한다.



# 공무원도 사적 연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월급쟁이도 그렇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본인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자녀의 결혼과 병원비, 경조사비 등으로 퇴직과 동시에 빙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43.5%는 공무원 연금으로만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에 이루어진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공무원 연금이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임용한 공무원은

30년 재직 후 은퇴 시 9급 공무원은 134만 원, 7급

공무원은 157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더구나 2033년부터는 연금 수령 나이도 65세부터로 조정된다. 공무원은 60세에 퇴직하니 5년간 소득 절벽을 맞이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이 틈새를 메우는 식의 사적 연금은 구성 할 필요가 있다.



## 과거에 공무원은 사적 연금이 필요 없었지만…

사적 연금이란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연금 가입률 자체가 20%대로 낮지만, 공무원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분리과세 한도가 600만 원으로 적어 자칫 잘못하면 소득공제 혜택보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고, 이로 인해 사적 연금에 가입해 봐야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공무원 연금만 믿을 수는 없으니 노후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간혹 공무원도 세액공제를 받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물론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700만 원을 납입하면 13.2~16.5%의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효과도 누리고,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참고로 사적 연금은 투자 원금과 투자 이익을 합쳐 3.3~5.5%의 연금소득세를 뗈다. 총금액을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해 나눠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의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총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 연금저축 가입자의 70%는 보험사를 선택, 이유는?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은 사적 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연금 중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비율이 73.6%를 차지한다. 연금저축신탁(은행)은 12.2%, 연금

저축펀드(증권사)는 10.1%다.

보험이 왜 이렇게 압도적일까? 이는 바로 '엄마 친구' 효과다. 우리나라는 보험 판매의 대부분이 설계사 채널로 이루어지는데, 기혼 여성 설계사 비중이 70%대에 이른다. 이들은 평소 매의 눈으로 동향을 살펴보다가 지인의 자녀가 취업했다는 점만 확인하면 곧바로 연금저축보험 계약서를 들이민다. 그런데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판다는 것은 판매자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이고, 돌려 밀하면 가입자가 그만큼 불리하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연금 저축보험 수익률은 생명보험사가 1.84%, 손해보험사가 1.50%에 그쳤다. 2018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각각 1.79%, 1.36%에 머물렀다.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 보험사는 정해진 이율로만 수익을 지급한다. 더구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월 납입금의 9~15%가 매해 사업비 명목으로 사라진다. 이 자금이 바로 엄마 친구인 설계사와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판매대리점(GA), 보험사 등으로 넘어간다. 가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은행, 증권사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증권사 지점 가지 않아도 연금 이전 신청 가능

필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연금저축펀드는 2019년 10.5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률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증권사 상품은 위험할 것 같아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보수적이라고 생각된다면 해도 증권사를 고르라고 권하고 싶다. 보수적일수록 평상시에는 눈에 잘 안 띠는 연금저축만이라도 공격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

이다. 월 단위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급변동하는 장세 여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하필이면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2009년 은퇴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전례가 있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타깃데이트펀드(TDF)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target date)으로 해 생애 주기에 따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다. 은퇴 2~3년 전부터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저축펀드의 또 하나 장점 중 하나는 본인이 직접 운용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로 제한된다. ETF란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 삼성그룹 ETF, 해외 주식인 테슬라나 구글을 사고 싶다면 나스닥100 ETF, 4차 산업혁명 ETF 등을 고르면 된다. 다만 평상시에 주식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추천한다.

지금 만약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증권사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 증권사를 찾아 연금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는 요즘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절대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안 된다. 일단 상품을 해지하면 여태까지 받았던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 상품은 보통 납입 7년 미만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금이 보존되는 때에 맞춰서 연금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연금저축은 보험이든 신탁이든 펀드이든, 5년 이상 유지율이 60%에 그친다. 10년 이상 유지율은 30%밖에 안 된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간에 환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모조리 반납해야 한다. 연금을 중도 환매하지 않도록 꼼꼼한 자금 관리가 필수다.



# LP판은 돌아온 것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심심찮게  
눈에 띠는 LP판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역 광장과 이어진 문화역서울 284 광장에 거대한 레코드판 조형물이 설치됐다. 문화역서울 284에서 기획한 전시 <레코드284-문화를 재생하다>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레코드284>는 전시명처럼 레코드판, 즉 LP판에 관한 전시다. 21세기에 LP판과 관련된 전시를 있다고 하니 ‘구시대 유물의 추억 팔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가 있겠지만 LP판은 지금 가장 유행하는 아이템이다. 역시나 지금 LP판 유행의 흐름을 들어본 적 없는 혹자는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 LP판으로 음악을 들었던 세대들이 갑자기 늦바람이 들어서 중고 LP판 봄이라도 일으키고 있다는 건가?’ 그렇 리가. 국내든 해외든, 지금 가장 핫한 뮤지션은 LP판으로 음반을 발매 한다. 그리고 LP판 유행을 이끄는 세대는 애초에 그것이 과거에 얼마나 유행했는지 알 길이 없는 젊은 세대다. 10대나 20대가 LP판을 수집하고 있다. 그들이 대단한 음악 애호가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 로컬이 아닌 글로벌

음반 시장에서 사장될 것이라 여겼던 LP판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건 대략 10여 년 전쯤이다. 미국의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닐슨 사운드스캔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미국 내에서 LP판 판매량 기록은 250만 장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1991년 이래로 최대 수치였다. 그 이후로 매년마다 판매량이 상승했는데 2020년 크리스마스 주간인 12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만 184만 장 이상이 판매됐다고 한다. 심지어 2020년 미국 음악 시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판매된 LP판이 2,745만 장에 달하며 1980년 이후 처음으로 CD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LP판 판매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추세다. 정확하게는 2007년부터 판매량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음반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480만 장 이상의 LP판이 판매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LP판의 유행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이다. 국내에는 LP판 판매량을 정확히 집계하는 주체가 없지만 예스24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LP판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73%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국내 유일한 LP판 제작사인 마장뮤직앤픽처스에서는 지난해보다 LP판 주문량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P판의 유행은 국내에서도 유효한 트렌드인 것이다.

## LP판은 더 이상 음반이 아니다

2020년 6월, 백예린의 첫 정규 앨범 <Every Letter I Sent You>의 LP판 예약판매가 시작됐다. 한 달 전 한정판으로 발매된 LP판 2,000장이 이미 판매 당일에 모두 절판된 상황이었다. 일반판은 1만 5,000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CD가 아닌 LP판으로 말이다. 대단한 인기였다. 그렇게 두 달을 기다려 비로소 해당 앨범을 손에 넣게 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몇몇 트랙에서 소리가 튕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결국 제작사에서는 불량 ‘알판’(디스크 자체)을 교환해 주겠다는 공지를 했다. 문제는 소장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포장 자체를 뜯지 않은 구매자들이었다. 심지어 턴테이블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한 알판이 불량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LP판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저 소유 자체가 목적이다. 심지어 턴테이블도 없는데 LP판을 구매하고 수집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그것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다. 게다가 ‘내돈 내산’인데 무슨 상관이겠는가. 다만 이런 현상을 통해 현재 LP판이 어떤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LP판은 음반이 아니다. LP판이 음반으로서 기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는 LP판을 음악을 듣기 위한 음반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저 어딘가 올려놓고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LP판의 커버 디자인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알판에 색이 들어간 컬러 한정판 출시 빈도가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LP판의 물성이 음악적인 영역을 넘어 시각적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LP판은 더 이상 음반의 영역에서만 평가되는 물건이 아니다. 디자인 영역에서도 각광받는 소품에 가깝다.

## 아날로그의 귀환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LP판의 수요를 높이는 건 과거 LP판으로 음악을 들었던 세대의 노스탈지어가 아니다. LP판은 커녕 CD도 먼저 본 경험이 없는 10대와 20대다. 21세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에게 음악이란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이었다. 턴테이블은 물론 카세트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 같은 것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LP판은 추억의 대상이 아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무언가이다. 단 한 번도 음악을 실물로 소유해 본 경험이 없는 세대가 LP판을 사는 건 그 때문이다. 음악이라는 취향과 기호를 실물로 소유하는 재미를 느낀 것이다.

그런데 왜 CD가 아닐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LP판으로 음악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갖는 목적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앨범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저 커버 디자인이 예뻐서 LP판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CD는 너무 작다. LP판에 비하면 소유한다는 만족감이 부족하다. 더 크고 명확한 것에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CD의 음질은 스트리밍 음원과 변별력이 없다. 하지만 LP판은 알판의 형태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부터 가신선한 경험이다. 정말 물건을 돌려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눈으로도 실감 난다. 음악을 듣기 위해 알판을 꺼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여정이 된다. 덩달아 카세트테이프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LP판을 수집하는 10대와 20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음악을 소유하는 재미를 처음 느끼고 있다. 스마트폰 너머로 보던 음반 커버를 실물로 마주하는 충족감을 즐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LP판의 유행은 아날로그의 귀환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다. 회귀가 아니라 시작이다. 디지털 시스템의 편의가 결코 채워 줄 수 없는 정서적 포만감을 새롭게 경험한 세대가 직접 선택한 결과다. 귀환이 아닌 시작이다.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그렇게 LP판은 다시 돌아온 것이다.

Health Infographics

## 편안한 호흡을 돋는 '코' 건강 지키기

얼굴의 중심부에 위치한 '코'는 호흡기이자 냄새를 맡는 후각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코' 건강은 더욱 중요해졌다. 코의 점막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에, 코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보고 바이러스를 예방해 보자.

### 알레르기 비염

정의 연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코 점막의 질환

원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알레르기 체질 및 주위의 천식 유발 요소들의 상호작용

치료 항히스타민제 복용, 바강 내 스테로이드제 분무, 3~5년 동안 주기적으로 면역주사 투여

### 축농증(부비동염)

정의 코 주위의 뺏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미열, 코 막힘, 두통 등이 동반되는 질환

원인 장기간 지속된 급성 비염 및 코 막힘, 기온 습도의 변화,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

치료 약 8~12주 이상 약물 치료, 만성화될 시 내시경 수술을 통한 비강의 구조적 이상 제거

### 비출혈

정의 코에서 피가 나는 질환

원인 비강 내 점막 및 혈관의 손상, 과도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분비 기능 저하, 세균 감염, 염증 등

치료 대부분 전방 비출혈이므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양쪽 코를 10분 이상 마사지, 15분 이상 피가 날 경우 병원 진료

### 수면무호흡증

정의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원인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허,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짧은 경우

치료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수면 상태 점검 및 구강 내 장치(양압기 등) 처방, 기도확장술

## 점막 보호하기

코와 관련된 각종 질병의 원인 '비강내 건조함'을 해소하는 방법



### Healthy Guide 01 촉촉한 점막은 수분 유지로부터

콧속이 마르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어 습도를 50%로 유지하기



### Healthy Guide 02 아침·밤 마사지로 코 막힘 해결

미간을 문지르고 콧방울 옆 등을 꾹꾹 눌러 비강 근육 풀기

## 나도 혹시? 수면무호흡증 체크리스트

코 건강이 나쁘면 숨 쉬기가 불편해 두통과 피로가 몰려온다.

이렇듯 코 건강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코를 잘 관리해야 한다.  
코를 건강하게 해 주는 솔루션을 알아보자.

## 만성 염증 다스리기

청결 유지와 천연 요법은 비염 치료에 효과적!



### Healthy Guide 03 비강용 생리식염수로 염증 치료 및 불순물 제거

체액의 염분과 같은 농도(0.9%)의 생리식염수로 1일 1회 코 세척하기



### Healthy Guide 04 천연 아로마 오일로 비염 증상 완화

4~8주 동안 멘톨,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등의 아로마 오일을 코 주위 또는 베개에 묻히기

- 수면 중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자주 깬다
- 아침에 일어나면 입속이 심하게 말라 있다
-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
- 낮, 오후 시간에 자주 출린다
- 만성 두통,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을 자주 느낀다

마	
름	꼬
다	이
운	
이	
우	

‘기우(杞憂)’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기(杞)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으로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말이다. 지금 이 단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은 반 토막이 났고,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여나 코로나19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그 와중에 가계 대출과 집값 등 조그마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그러다 보니 불안, 초조, 조급함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약해지는 나를 마주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선배가 다가와 “재우아,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는데, 너는 왜 그리 오만상을 하고 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라고 물었다. 나는 깊은 한숨과 함께 요즘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산다고 실토했다. 그러자 선배는 웃으며 “걱정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 못 들어 봤어? 주위가 답답하고 복잡할수록 걱정일랑 접어 두고 네 자신에게 집중해 봐”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세상 걱정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 걱정이 없어야 맞다. 그래서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나에게는 집중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어릴 적 초등학교에 다니던 길에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다. 수초 사이에서 뾰글뾰글 올라오는 물방울, 그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던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지켜보곤 했다. 그래서 때로는 자자 해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그때를 떠올리며 나의 조급함과 걱정을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해 시쳇말로 ‘물생활’이란 것을 시작하게 됐다. 물생활이란 물에 사는 수생생물을 관상이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거나 이용해 아름다운 수경을 연출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다.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다. 뜯금없이 가져온 어항에 가족들의 싸늘한 눈초리와 ‘이게 뭐야?’라는 분위기가 나를 힘들게 했다. 게다가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얼마 안 가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뒤로 원인 분석을 해 다시 꾸미고 또다시 꾸미고… 이렇게 4개월을 하다 보니 이제 제법 볼만하게 됐다.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일명 ‘물명’(물을 보며 명하게 있는 상태)을 하고 있노라면, 신기하게도 그 많던 걱정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편안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내가 편안해지니 가족들도 편안해지는 것이다. 처음 어항에 구피와 풍선물리라는 어종을 키웠는데 당시 아내의 반대도 심했고, 아이들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어항이 수족관이 되고, 수족관에 어종이 늘어나게 되고, 건강한 물고기가 많아지자 점점 아이들의 관심과 아내의 지지를 받게 됐다. 어느 날은 내가 왜 물고기 밥을 안 주냐며, 직접 먹이를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신기하고 재

미있을 줄은 몰랐다면 칭찬 아닌 칭찬을 해 주는 것이다. 그때 아내의 인정이 나의 자존감을 한순간에 높이는 것을 느꼈다. 아무튼 아내의 강력한 지지로 현재는 수족관이 3개로 늘어나 있다. 그리고 가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보면 수족관을 중심으로 아내도 아이들도 지나다니며 물명을 하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아내 또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동안 나의 마음이 불편하다 해서 가족들에게 짜증 부렸던 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다. 사실 나는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물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됐다. 풀이해 보자면 꽃은 그냥 꽃이다. 산도 그냥 산이며, 바위도 그냥 바위 이듯이 꽃도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수히 많은 마음이 존재한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심술, 동정, 아름다움, 추함 등등… 그런데 꽃이라는 매개체를 보았을 때 아름다움이란 마음이 특하고 발현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아름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발현되는 마음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쉽게 바뀌는 것이 없다.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불쾌한 감정 속에 빠져 있다가도,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유쾌한 감정으로 순식간에 뒤틀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나를 괴롭히던 그 진흙탕 같은 상황에서 나는 꽃을 보았고, 편안함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내 마음속의 꽃만 찾아도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꽃을 찾으러 꽃밭으로 가야만 한다. 가만히 앉아 꽃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아래서 흥시가 내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힘들고 지칠수록 자신의 꽃을 찾아 꽃밭으로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꽃은 누군가에게는 수족관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권의 책 혹은 한 편의 영화일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서 내 안에 꽃밭을 가꾸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신만의 꽃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달았다. 한마디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나를 낭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수록 꽃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를 따뜻하게 해 줄 것이며, 나아가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따뜻해질 것이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다. 부디 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아, 낯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출	소	후	제	2	의	인	생	을	
살	며	꼭	벗	을	갈	겠	습	니	다

“

혼자만의 외로운 길에서 오늘도 운동 시간에  
저 하늘의 푸른 기상을 보며  
수많은 피해자님에게 용서를 빈다.

”

많은 피해자님 중에 유난히 지워지지 않는 두 분이 계신다. 한 분은 경북 고령에서 공장을 경영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신 분이다. 이분들 외에도 노트에 적어 보니 50여 명이나 된다. 피해 금액으로는 5억 원 정도이다. 이분들께는 훗날에라도 꼭 갚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죽음에 임박해서 편안하게 저세상에 갈 것 같다. 누구든지 인생 길에서 처음부터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듯싶다.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간다면 깨끗하게, 정당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으니, 이제는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남은 생을 정화하는 것만이 최우선의 좌표이다.

첫 출발 인생길에서는 행운아로 주변에서도 칭찬받는 모범 청년으로 살았다. 월급쟁이로 꾸준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업한다고 까불거리다가 엊어진 인생이다. 욕심이 발동해 모험도 했고 이것이 누적돼 죄를 키워만 갔다. 안전 불감증처럼 죄의 대가를 모르고 간덩이가 부은 것이다. 계속 죄의 단위만 커져 갔다. 정역 3년 형과 벌금 7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뒤로 지금까지 수형생활한 지 4년 4개월 15일이 되었다. 정역 3년은 지난해 6월 8일에 만료되었고, 지금은 나의 지원에 따라 징역방 작업거실에서 열심히 벌금 노역을 하고 있다. 주변의 동료 재소자들은 나를 ‘할배’라고 부른다. 나이가 60대 중반이니 이제 뭐 살대로 다 살았다는 뜻이지 싶다. 밖에서는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곳에서는 많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있는 방에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밖에서나 이곳에서나 할배라는 호칭을 제일 싫어한다.

작년에 자체 직업훈련소에서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1년 동안 실습을 열심히 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다. 현재 나의 분야는 토목기사인데 용접 기능을 첨가한 다음 관리자가 되고 싶어 준비했다. 관리자가 되면 시공 부문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며 부실시공 배척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도 계획했다.

이제 벌금형이 1년 남짓 남았다. 그동안의 긴 여정이 끝나는 날, 2021년 10월 20일에 출소하고 만날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고령군 관내에 계신 최 회장님과 서울에 계신 이 사장님의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맹세도 잊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겁한 나를 합리화해 주는 서류와 세금계산서(매출)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지만,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6,000만 원과 7,600만 원을 꼭 변제하겠으니 부디 하늘나라에 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용서를 구한다.

지금부터 나는 똑바로 견고, 보고, 생각하고자 한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전문건설업 면허 1개뿐인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사활을 걸고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고자 한다. 혼자만의 외로운 길에서 오늘도 운동 시간에 저 하늘의 푸른 기상을 보며 수많은 피해자님에게 용서를 빈다.

# 판결문을 통해 본 수용자 학습권 분석\*2

유주영\*\*·강대중\*\*\*



## 목차

- I. 서론
- II.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 III.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 IV.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 담긴  
판단 논리 분석**
- V. 논의 및 결론

\*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5호에 실린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2019. 12. 8)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3) 게재확정일(2019. 12. 26)

## IV.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 담긴 판단 논리 분석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 담긴 쟁점은 기관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각의 판례는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 논리에 기초해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였다.

### 1. 기관의 목적: 관리 대 변화

수용자 학습권은 교정시설의 목적 중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 교정시설의 첫째 목적은 수용자의 구금을 확보하는 것(유병철, 2017)이고 둘째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전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관리를 위해 질서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교정교화를 통해 수용자를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진다.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관리와 변화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편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내려진 경우가 많다. 관리를 중시한 판례는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고, 변화를 중시한 판례는 수용자의 학습권을 확대하였다.

1998년 수용자에게 신문 내용을 삭제해 배달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하는 판례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근거로 제시했다.<sup>1)</sup> 신문 기사 중 탈주나 집단 단식, 선동과 같은 내용 때문에 교도소 단체 생활의 질서를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05년 판례<sup>2)</sup>는 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나,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금지처분은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벌인데, 벌의 일종으로 수용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진다면 타당하다는 입장이 담긴 판결이었다. 교정시설의 관리는 목적이 학습권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형법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교도소 등 구금 또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이다. 교도소

등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변화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강제적인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은 물론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이 불가피하다.

현법재판소의 위 두 판례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해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즉 교도소의 질서유지를 중시한 것이다. 2005년 판례는 금지처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학습권 제한은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하여 금지처분 기간 동안 집필 전면금지는 사라졌으나, 그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은 유지되었다. 교정시설의 관리와 변화라는 두 목적이 항상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금지처분을 받은 규율위반자에 대한 2005년 현법재판소 판례<sup>3)</sup>는 관리와 변화의 목적이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법재판소는 금지처분자의 집필을 금지하는 것은 규율 위반자에게는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규율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도소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규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규율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일종의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이다. 즉 규율 위반자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규율 준수라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관리 목적과 함께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변화의 목적을 중요하게 본다. 2018년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판례<sup>4)</sup>는 관리와 변화의 목적이 균형을 이루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학습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기본권 제한으로 수용자가 입는 피해와 공익은 최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등의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정수단”이라고 판시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러 판례는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는 논리로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내세운다. 이때 ‘질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질서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 자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

양한 의미가 있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독재자에게 충성하여 이념을 같이하는 것을 혼란이 없는 순조로운 상태라고 보았지만 민주주의 시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볼 수 있다. 교도소에서 말하는 ‘질서’도 시대마다 의미가 다르다. 1990년대는 “동조단식이나 선동”, “동조농성”이 교도소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1998. 10. 29. 결정, 98헌마4). 그래서 1990년대는 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신문기사는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삭제했다. 즉 1990년대에 ‘질서’는 집단행위(단체단식이나 단체농성 등)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교화’는 집단행위에 동조하지 않는 상태를 변화의 첫 단계라고 보았을 수 있다.

반면, 최근 교도소에서 말하는 ‘질서’는 1990년대와 의미상 차이가 있다. 2018년 판례를 보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라는 표현이 있다. 현재 교도소 ‘질서’에 해하는 행위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 혹은 정치적 이념 등에 관련된 수용자들을 모으는 행위라는 것이다. 즉 현재 교도소에서 ‘질서’는 1990년대 ‘질서’의 의미와 유사한 듯하지만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추가되었다. 교정교화의 의미도 체계에 불만 없이 순응하고 불순한 세력에 가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도 경계가 애매하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서 그칠 수도 있지만 ‘저항’으로 읽힐 수 있는 면도 있다. 예컨대, 2018년 교육받을 권리 판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한 과거 사건에서는 기각된 적이 있다.<sup>5)</sup> 그 이유는 원고가 교육이나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원고가 교육·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 표현 자체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 혹은 저항으로 받아들여져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질서’는 교도소의 제일의 목적이면서 판례에도 자주 등장하는 판결의 논리인데 시대마다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이에 따른 ‘교정교화’의 의미도 변화했다. 앞으로도 수용자 학습권의 제한과 확대에 대한 질서와 교정교화에 대한 의미 해석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내용 대 활동

수용자 학습권은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보장 범위를 달리한다. 학습경험에 있어 어떤 측면을 중시하는지는 수용자 학습권 판례에서 중요한 판단의 축으로 작용했다. 분석 대상 판례들은 학습경험을 내용과 활동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수용자의 학습경험에 있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 판례는 수용자들에게 좋은 내용의 학습만 제공되어야 한다며 학습권을 제한하였다. 반면, 학습 활동을 중요하게 본 판례는 수용자에게는 학습 활동 자체가 의미가 있으므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하여 학습권 확대의 논리로 삼았다. 이러한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은 시대가 흐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내용을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다면 현재는 활동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선 학습경험에 있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1990년대에는 수용자에게 특정한 학습 내용을 금지하였다. 1998년 신문기사 삭제 판례<sup>6)</sup>가 대표적이다. 당시 수용자에게 신문 기사를 삭제하여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며 학습 내용을 검열하고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5) 2017. 6. 9. 결정, 2016구합1402.

6) 1998. 10. 29. 결정, 98헌마4.

7) 2005. 2. 24. 결정, 2003헌마289.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105조는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관리, 교육 취소 등에 대해 쓰여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을 소속기관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며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 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선발”할 수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 운영지침」 제6장은 신문 등 구독 및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40조 3항은 “소장은 매월 1회 이상 신문 등의 구독신청을 받아야 하며” 제44조는 신문 등의 수량 한도에 대해 도서(잡지 포함)는 30권, 신문은 열람 후 폐기가 원칙이지만 소장은 “개인학습 등에 필요한 경우 도서, 잡지의 소지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도소 내의 규율을 어겼을 경우는 제108조에 의해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이 제한된다.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 제3조 1항은 집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쓰여 있다. 서신을 작성하거나 교육 및 직업훈련생으로 학습에 필요할 때 혹은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검찰 또는 법원에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 교도관 업무를 보조할 때다.

집필행위 자체는 정신활동과 관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수용자의 건전한 정신활동을 촉진하여 그의 교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편 수용자의 학습경험이 제한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권과도 관련되어 있다. 가령,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신문, 도서 등의 소지범위, 집필의 허가 등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항이다.<sup>8)</sup> 수용자 학습권과 관련된 법과 운영 규칙 등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대해 각 조항당 한 문장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 재량권의 범위가 협소한 것 같지만 판례는 교도소장의 재량권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건의 내용이 교도소장의 재량권에 속하는지 혹은 속하지 않는지, 속한다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적당한지 혹은 과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1998년 판례<sup>9)</sup>도 신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인데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량행위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어떤 사건은 교도소장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심리 조차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는 수용자의 학습 활

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 없이 각하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결 논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살펴보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방지교육을 제공 받지 않았다는 소송<sup>10</sup>과 외국어듣기 교육을 받고 싶으나 거부된 사건<sup>11</sup>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작위의무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수용자의 학습 활동은 통제될 수 있고 따라서 학습권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용자의 학습 활동을 통제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이 난 사건들이 있다. 판례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학습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며, 학습활동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교육받을 권리 판례<sup>12</sup>에서는 “소장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을 금지한다면 이는 “형집행법의 입법 취지와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교도소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발휘되면 수용자의 학습권과 더불어 인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판결

10) 2013. 2. 5. 결정, 2013헌마5.

11) 2015. 3. 24. 결정, 2015헌마186.

12) 2018. 5. 9. 결정, 2017구합22055.

13) 2018. 5. 18. 결정, 2018누2293.

14) 2018. 5. 9. 결정, 2017구합22055.

15) 2017. 6. 9. 결정, 2016구합1402.

16) 가령, 법에 명시된 ‘범위’는 신문구독에 관해서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규율은 질서에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이다. 실천 현장에서 수용자의 학습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 대한 해석은 수용자 학습권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17) 1998. 10. 29. 결정, 98헌마4.

이다. 2018년 잡지교부의 불허에 대한 판례<sup>13</sup>도 잡지교부를 불허처분한 것은 “(교도소장이)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판례들에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학습활동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녹아 있다.

수용자 학습권은 교도소장의 재량권 범위가 적어 질수록 확대되었다. 1990년대는 수용자 학습경험에 있어 내용이 중요했고 교도소장의 재량권의 영향이 커다면, 2000년대 이후는 학습활동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수용자의 자유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수용자가 학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판례<sup>14</sup>는 수용자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판결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된 선행 소송이 있었는데,<sup>15</sup> 쟁점은 원고가 피고인 교도소장에게 작업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의 여부였다. 재판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작업이나 교육을 제공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며 패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이나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피고는 작업을 하려면 인성교육이 필요하지만 공안 사법은 그 교육이 면제되는데 그 면제가 교육을 수료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학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 3.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 : 수동적 대 능동적

수용자의 학습권은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수동적 학습자로 보는지 혹은 능동적 학습자로 보는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내려졌다.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은 판례에서 법과 규율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수용자 학습권은 관련 법과 규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러한 법과 규율에는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학습권의 ‘범위’<sup>16</sup>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법에 나온 ‘범위’는 애매하여 판결을 할 때 그 해석도 달라지는데, 수용자를 학습자로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는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수동적인 자로 인식하였다. 1998년 판례<sup>17</sup>에서 신문의 삭제 내용이 “범위 내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때 “범위”는 “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와 같은 내용이었다. 당시 수용자들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고 그대로 모방하는 수동적인 학습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사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즉 1990년대 수용자는 ‘나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수동적 학습자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수용자에게 학습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교정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다.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단식, 선동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청구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동조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서와 규율을 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수용자가 과밀하게 수용되어 있는 현 구치소의 실정과 과소한 교도인력을 볼 때 구치소 내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극히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문기사의 삭제 내용은 위에서 말한 범위 내에 그치고 있을 뿐 신문기사 중 주요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바 없음이 인정되므로…(생략)…

그러면서 판례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합리적인 범위”라는 것 역시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바라보는 헌법 재판소의 입장을 담고 있다. 수용자는 수동적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내용 제한을 통한 학습권의 제한은 ‘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사실 ‘합리’라는 것은 누구를 주체로 언제, 어디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불합리’가 될 수도 있는데, 1990년대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라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수용자 학습권의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학습권 확대의 논리에는 수용자를 능동적 학습자로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2018년 판례<sup>18</sup>에서는 ‘범위’에 대한 해석을 염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사건에서 논란이 된 짐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피고가 우려하는 상황(질서문란)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논리 안에는 수용자가 잡지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담겨 있다. 그리고 2018년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판례<sup>19</sup>에서도 수용자가 학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에서 수용자를 능동적 학습자로 인식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수용자 학습권 판례 분석 결과 기관의 목적,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인식이라는 3가지 축을 기준으로 학습권의 제한이나 확대의 논리가 작동하였다.

<표 1> 수용자 학습권 판단 논리

판단 논리 논리의 축	제한의 논리	확대의 논리
기관의 목적	관리(질서유지와 안전)	변화(교정교화)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학습 내용이 중요	학습 활동이 중요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	수동적인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

우선, 수용자 학습권은 교정시설의 목적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 관리의 목적을 우선시한 판례에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논리가 작용했고, 변화의 목적을 중시한 판례에서는 학습권 확대의 논리가 작동했다. 두 개의 목적이 대치되지 않는 모습도 보였는데, 관리를 위한 통제가 변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부분에서도. 따라서 이 칸은 점선으로 표시했다. 두 번째, 학습경험에 있어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학습권이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 학습경험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학습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학습활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활동을 전면금지했는지의 여부가 주된 판단의 축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수동적인 학습자로 보았을 때는 학습권을 제한

하는 논리가 작동했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았을 때는 학습권이 확대되는 논리가 작동했다.

학습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김신일, 2002; 강대중, 2019).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조건하에 놓여 있지만 교정시설이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은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습권은 무한정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교정시설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웅진 수단이기 때문에(이백철, 2006)이다. 학습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자유권적 성격의 학습권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청구권적 학습권으로 구분된다(정기오, 2018; 최돈민, 2003). 분석 대상 판례는 수용자 학습권을 자유권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학습 활동은 “정신활동을 촉진하여 교정교화에 이바지”(2005. 2. 24. 결정, 2003헌마289)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학습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대표적이다. 학습권은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역시 수용자 학습권을 자유권적 성격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교정시설 규율을 어긴 자들에게 징벌로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도 자유권으로 학습권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자유권적 관점은 학습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자유권으로서 학습권은 일종의 ‘혜택’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특별한 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정 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용자 학습권을 사회권적 학습권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판례 가운데 “형집행법에는 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정수단”이기 때문에 “교育 또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형집행법의 입법 취지와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2018. 5. 9. 결정, 2017구합22055) 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이 입장을 잘 보여준다. 즉 학습은 교정교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공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수용자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면 이들이 변화할 수 있고, 출소 후 사회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는 믿음이 담겨 있다.

2015년 2월부터 전체 신입 수형자 대상 인성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최영신 외, 2015). 여기에는 수용자의 학습권을 일종의 사회권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담겨 있다. 교정교화를 위해 국가는 수용자에게 학습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폐루에서는 범죄자를 감옥에 수감하는 대신 집행유예한다는 조건으로 독서와 학업 재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sup>20</sup> 이것도 학습을 수용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보는 입장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장되는 한 모습이다. 수용자 학습권을 이해하는 데 자유권적 성격이 중요한지, 사회권적 성격이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는 학습의 개념과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수용자 학습권 논의에 있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학습을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지 수용자 학습을 촉진하는 경험의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의 보장은 결국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학습경험은 무엇인지, 이들의 변화를 위한 학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수용자 학습권을 다른 판례들도 정작 수용자에게 학습이란 무엇이며 어떤 학습경험들이 수용자를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교정현장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 학습권 보장은 수용자의 학습과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은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수용자를 변화 가능한 학습자로 조명하는 연구와 실천이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은 지면 한계상 생략합니다.

18) 2018. 5. 18. 결정, 2018누2293.

19) 2018. 5. 9. 결정, 2017구합22055.

20)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9601009&wlog.tag3=naver>  
<https://www.fayerwayer.com/2019/05/peru-ladrones-paulo-coelho>

# 교정 NEWS

교정 2월호

## 국무총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현장을 점검하고, 법무부와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중앙통제실을 점검한 정 총리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 법무부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용자의 인권 개선 방법을 찾아보고, 교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범계 장관은 수용자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의 일부이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난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위로했고, 직원들에게는 “공식 지휘 계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법무행정의 혁신이 시작된다”라며 격려했다.

##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물품 전달식 개최



코로나19 방역 관련 기부 물품 전달식이 지난 1월 5일과 14일, 15일에 교정본부에서 연이어 개최됐다. 1월 5일에는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이 2,500만 원 상당의 부착형 체온계 5만 개를 기부했으며, 1월 14일과 15일에는 하현(주)국보 대표이사와 장진우(주)OK컴퍼니 대표이사가 각각 KF94 마스크 10만 장과 200만 장을 기부했다. 전국 교정시설에 빠르게 배정된 방역 물품은 교정시설 내 근무자 및 수용자에게 공급됐다.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제1차 권고 발표

교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인권 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 분야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번 권고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향상 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권고에 따라 수용자 인권 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교화 기능은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 확산 대비 가석방 실시

교정본부는 지난 1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은 과밀수용을 완화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기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

##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마련



교정본부는 지난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노웅비

### 제33대 이경식 서울지방교정청장 취임

1월 25일 이경식 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제33대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 취임했다. 이경식 청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업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기 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커진 서울지방교정청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1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PCR 검사는 교정시설의 선제적 주기 검사 시행과 관련해 2월 7일까지 매주 1회 실시했다. 서울구치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안양교도소는 1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1차 검사 결과 전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양교도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 MBC <뉴스데스크> 언론 취재 실시

수원구치소는 1월 19일 MBC <뉴스데스크> 언론 취재를 실시했다. 수원구치소는 선별검사소, 엘리베이터, 수용동 및 수용거실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과밀화의 위험성 및 시설 방역의 한계를 점검하고, 더 나은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최재화

### 교정위원, 기업체, 종교 단체 방역품 기증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교정위원, 기업체, 종교 단체 등 각

계각층에서 방역 물품 및 격리 수용자용 위문품을 지원받고 있다. 박호서 소장은 “방역 물품 등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 모범공무원 표창 전수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1월 8일 소장실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한 총무과 허순심 교감은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허순심 교감은 “남은 재직 기간도 공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제49대 류기현 서울남부구치소장 취임

1월 5일 제49대 류기현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취임했다. 류기현 소장은 “수용 질서가 확립된 행복한 직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OK컴퍼니로부터 코로나19 방역용 KF마스크 총 4만 9,000장을 기증받았다. 이에 의정부교도소는 기증받은 마스크를 수용자에게 1일 1장씩 무상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영훈 소장은 “마스크를 기증해 주신 업체, 단체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여주교도소는 1월 13일 여주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PCR검사는 기존에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보다 정확성이 높아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효과적이다. 이번 검사 결과, 직원 360명과 수용자 1,500여 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신규 방호원 임용식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1월 20일 신규 방호원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방호원은 방호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성실히 근무에 임하겠다고 임용식에서 포부를 밝혔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1월 1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다. 추미애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방역 물품과 선별진료소 등을 점검하고 1명의 확진자도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 대한적십자사, IOK컴퍼니 마스크 기증

의정부교도소는 1월 7일과 12일, 대한적십자사와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원주교도소는 12월 말부터 매주 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하에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원이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매주 1회 선제적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원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1월 6일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강릉교도소는 외부인 접근이 원천 차단된 상태로 방역 전담팀이 1일 1회 이상 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 코로나19 현장 대응팀 격려품 지급

영월교도소는 1월 12일 코로나19에 맞서 격리 수용동에서 일하는 코로나19 현장 대응 전담팀을 격려하고자 비타민, 과일 등 격려품을 지급했다. 이번 격려품 지급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수용자들과 밀접 접촉하는 직원들의 피로감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터 마스크 1만장을 기증받았다. 평택시의 이번 마스크 기증은 교정기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력하는 뜻에서 진행되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은 마스크 기증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증된 마스크는 수용자에게 1일 1장씩 지급되고 있다.

## 소망교도소 / 7직급 양재영

### 도서 기증 행사 실시

소망교도소는 1월 21일 올해 첫 도서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소망교도소는 2020년 9월부터 수용자가 출소하면서 폐기를 희망한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분류해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책 나루터’에 매월 약 70권을 기증하고 있다. 이번에는 총 1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정철열

### 제26대 오홍군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

1월 25일 오홍군 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제26대 대구지방교정청장으로 취임했다. 오홍군 청장은 각 과 사무실을 둘러보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 보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수용 관련 지역 주민 화합

대구교도소는 1월 3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신축 시설에 서울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화합을 이루어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의지와 대응책을 설명한 대구교도소의 모습에 지역 주민들이 방역 성과 및 향후 대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교정시설의 안정화를 기원했다.

수용자가 비폭력 대화와 서클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체 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1월 4일 소장실에서 신규 시설관리인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 과장들만 참석했다. 김태수 소장은 신규 임용 직원에게 “소내 환경 정리와 시설 관리를 통해 포항교도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 수용자 도주 대비 긴급 출동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1월 16일 휴일 등 취약 시간에 수용자가 근무자의 빈틈을 노려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긴급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긴급 출동 상황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교정 장비 활용 능력을 숙달함으로써 교정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 교정위원 마스크 기증

대구구치소는 1월 6일 김대희 교정위원으로부터 마스크 1만장을 기증받았다. 김대희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기증 받은 마스크는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이정호

#### 외부 의료시설 업무 협조 유공 표창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4일 수용자의 외부 병

원 의료 처우에 협조한 협약병원(안동의료원, 안동 성소병원, 안동 대성그린병원) 진료협력팀 직원에게 업무 협조 유공 표창을 전달했다. 류동수 소장은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일반 환자 진료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병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격려했다.

####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 대한적십자사 마스크 기증

안동교도소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2,000장(540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금용명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교정 시설에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울산구치소 / 교사 황정목

#### 청렴 실천 결의 대회 개최

울산구치소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새해 결의를 다지는 청렴(갑질, 음주 운전 근절)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갑질 및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정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 공무원 근속 승진자 임용장 전달

경주교도소는 1월 4일 공무원 근속 승진자(공업주사보 이시형, 사무운영주사보 이후선)에게 승진 임용장을 전달했다. 김현주 총무과장은 “2021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맡은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박원주

#### 리모델링 직원 침실 운영 시작

통영구치소는 2020년 12월 15일에 직원 숙원 사업이었던 직원 침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5개소 큰 침실로 운영되던 직원 침실이 소규모 10개소로 새 단장해 비상 대기 수면의 질이 확연히 개선됐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최상훈

#### 자체 소방 훈련 실시

밀양구치소는 1월 16일 당직 교감 및 자위소방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

했다. 이날 밀양심리치료센터 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소방 장비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과 화재 시 상황 통보·피난 등의 재난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상주교도소는 1월 6일, 12일, 15일, 19일 상주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주보건소 의료진 6명이 교도소 의료진과 함께 검사를 실시했으며, 2월 7일까지 매주 1회 검사를 진행했다.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재혁

#### 제30대 김진구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

1월 25일 제30대 대전지방교정청장에 김진구 전 안양교도소장이 취임했다. 김진구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취임식 행사는 생략했으며,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교정의 가치 아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전달했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 대전광역시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방문

1월 5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신입 수용자 검사 부스 등을 둘러본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교도소는 앞으로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 2020년 구금 보호시설 인권 보호 우수 기관 선정

청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31일 ‘2020년 구금 보호시설 인권 보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비방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 조사에서 청주교도소는 입소 절차 및 권리 구제, 생활 및 시설,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중보건의가 직접 참여해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천안교도소는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앞장설 계획이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정민호

####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월 6일 승진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진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생활 속 거리 두기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승진한 직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행정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김응분 소장은 해당 직원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홍성교도소는 1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위해 보안과 내에 선별진료소 및 수신실을 별도로 설치했으며, 부서별로 검사 시간에 차이를 두어 진행했다. 이번 검사 결과 전 직원 음성 판정을 받은 홍성교도소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월 첫째 주까지 매주 1회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1월 6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승진한 직원들은 “기쁜 마음과 동시에 한층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며, 공주교도소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 대한적십자사 마스크 기증

충주구치소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KF94 마스크 1만 7,000장(900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 충주구 치소는 기증받은 마스크를 수용자들에게 1일 1장씩 지급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에 한층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

나19 감염 우려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월 18일 신규 직원 임용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임용된 손창현 운전서기보는 “어려운 시국이지만 논산지소 직원들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전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교정협의회 떡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떡과 떡을 기증받았다. 유철흠 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수용자들을 위한 따뜻한 기증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제36대 구지서 광주지방교정청장 취임**

1월 25일 제36대 구지서 광주지방교정청장이 취임했다. 구지서 청장은 “모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직원들이 항상 밝고 웃는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법무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

1월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점검차 광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유태오 소장은 초기 확진자 발생 시기부터 시간대별 현황을 요약해 보고하고, 코로나19 감염 복산 차단을 위해 실시한 각종 조치 사항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호**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1월 6일 승진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한 교위 이성일, 교위 신재복, 교위 이동윤은 최병록 소장으로부터 임명장과 계급장을 받았으며, “초심을 잊지 않고 교정 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관과 제주도청 자치행정팀장 등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시설 여건 및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제주교도소의 현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은 제주교도소에 물품,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지역사회 장애인협회 후원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1월 5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순천시 시각장애인협회에 각각 3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병일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용산중학교 준법상 및 장학금 전달**

장흥교도소는 관내 용산중학교의 성적 우수, 생활 모범 출입생 9명에 대한 준법상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흥교도소는 매년 미래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용산중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교정행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곽현국**

**주식회사 코스나인 손 소독제 기증**

목포교도소는 1월 8일 주식회사 코스나인으로부터 손 소독제 1,000개를 기증받았다. 정봉수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와 교정시설을 위해 소독제를 후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교정협의회 초코파이 기증**

군산교도소는 1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초코파이 1,040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정협의회 고병수 회장은 “앞으로도 무의탁 수용자 및 모범 수용자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수용자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코로나19 대응 합동 현장 점검**

제주교도소는 1월 20일 코로나19 대응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교도소는 행정안전부 조직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수원구치소 교감 **이선용**



부산교도소 교사 **변신우**



대전교도소 교사 **김경남**



군산교도소  
간호주사보 **강미혜**

## 긴급 상황 대비 훈련 실시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 유지

수용자의 출정과 법정 구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선용 교감은 법정 구속자들의 자해나 소란 행위, 심근경색 환자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상황 모의 훈련에 힘쓰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근무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 훈련과 도주로 확보를 위해 직접 법원 주변을 탐방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법원 및 검찰청 청사 방호 시스템을 숙지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 새벽 시간 즉각적인 대처로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 방지

2020년 12월 28일 보안 3부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던 변신우 교사는 새벽 2시 13분경 모니터로 화재 발생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 이후 유동혁 교위와 함께 상황대기실에서 취침 중인 직원들을 깨운 후, 소화기를 들고 현장에 출동했다. 2시 18분경 직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시켰으며, 2시 21분경 도착한 119 소방차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는 등 교정시설 내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 교정작품 쇼핑몰 홍보 및 교정시설 환경 개선

김경남 교사는 직업훈련과 세입 결산 담당자로, 세입과 부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생산 실적 관리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했다. 특히 교정작품 쇼핑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한 배송 처리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2020년도 하반기 교정작품 쇼핑몰 운영 특별 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수용자 입·출소실이 노후화돼 수용자 인권 보호가 미흡해지자 수차례 담당 부서에 건의해 2019년 11월경 예산을 배정받아 바닥 개선 공사 및 환복 장소 파티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교정시설 의료 행정 수준 향상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미혜 간호주사보는 의료과 소속으로 수용자의 국가지급의약품(관약) 조제 등 국가 약품 지급 업무를 담당한다. 조제약과 포장기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교정시설 의료 행정의 질적 수준 및 수용자 의료 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파로 매우 춥고 힘든 상황에서도 직원 및 수용자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했다. 이렇듯 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며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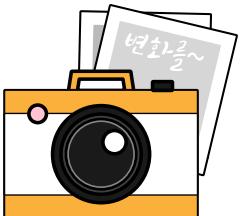
## 보라미, 보드미 컬러링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발전합니다.  
아래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보드미에 색을 입혀 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손길로  
재탄생한 보라미, 보드미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빈칸 퀴즈

속초관광수산시상 내 형성된 ○○골목은 속초의  
별미 닭강정을 파는 곳이다.  
만석닭강정과 속초닭강정, 중앙닭강정 등 100여 곳의 상점이  
성업 중인 이 골목의 이름은 무엇일까?



컬러링 및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mailto:correct201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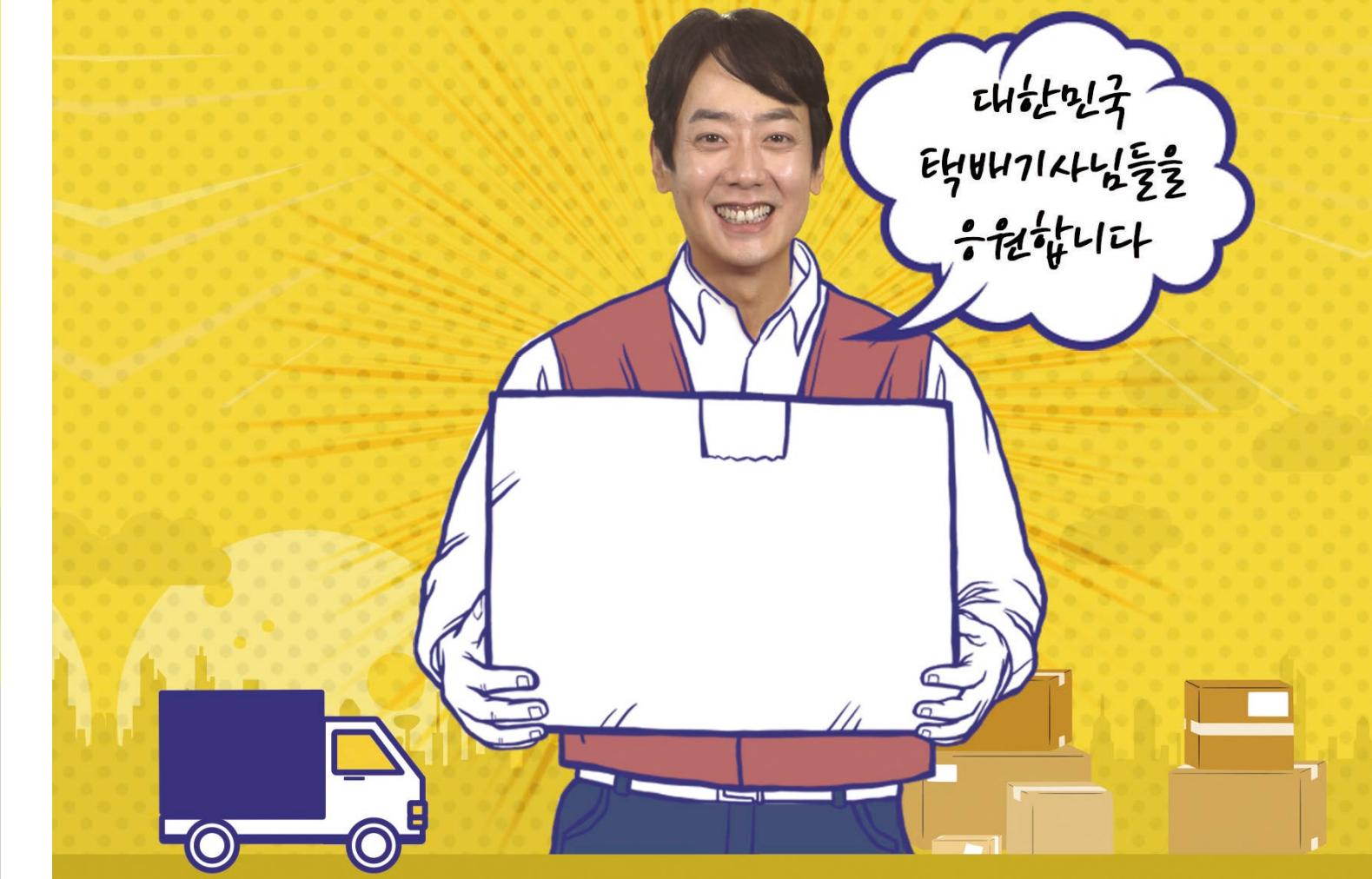
**참여방법** 컬러링 채색본 사진 및 퀴즈 정답을 이메일에 첨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택배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택배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교정공무원 수기(시, 수필 등)를 모집합니다

월간 <교정> '대나무숲 일기'에 담을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수기를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mailto: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